

2018

Vol.17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코스카리포트

KOSCA + NEWSLETTER



CONTENTS

KOSCA LETTER Vol. 17

코스카레터 제 17 호



2018년 Vol. 17

발행인 회장 김세원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디자인/제작 CCA (051. 647. 5991)
인쇄 성광정판 (051. 261. 0027)





PART 1

- 04 1. 권두사
- 최대경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장
 - 허정문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본부장

PART 2

- 06 2. 협회 소식
- 14 SPECIAL. 01 >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북
- 16 3.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22 SPECIAL. 02 >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무비
- 23 SPECIAL. 03 > 건강 지키미
- 24 4. 신기술 소개
- 26 SPECIAL. 04 > 쉬어가는 유머
- 27 SPECIAL. 05 > 이달의 경영어록

PART 3

- 28 5. 전문건설인의 삶
- 건삶인 제31호 김점식 (주)삼강기업 대표이사
 - 건삶인 제32호 윤영갑 (주)보광 대표이사
- 32 6. 건설산업정보 - Part.1
- 38 SPECIAL. 06 > 부산의 명소(민락수변공원&이기대공원)
- 40 7. 건설산업정보 - Part.2
- 50 SPECIAL. 07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내용 및 문답풀이
- 52 8. 건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 55 SPECIAL. 08 > 그것이 알고 싶다(하도급 분쟁 해법)
- 56 9. 회원사 질의·응답
- 58 SPECIAL. 09 >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카사 밀라)
- 59 SPECIAL. 10 > 생활 속 유용한 꿀팁

PART 4

- 60 10. 회원사 현황
- 63 SPECIAL. 11 > (주)YTN 복지혜택물 안내
- 64 11.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 66 SPECIAL. 12 > 2018년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 67 SPECIAL. 13 > 중앙회 업무단신, 부산시회 3/4분기 주요 일정 안내
- 68 12. 회원사 참여 마당

01

권두사 MESSAGE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도시 부산 건설을 기대합니다

최대경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장



전문건설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장 최대경입니다.

먼저 '코스카레터' 17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김세원 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크게는 남북 판문점회담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한반도의 종전시대를 전망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계기로 남북경협 물꼬가 트여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SOC 사업 예산축소와 다양한 부동산규제정책으로 건설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이때 우리 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지방정부 모두는 민선6기에서 민선7기로 접어드는 전환의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이 변화의 흐름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적기가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입니다. 특히, 전문건설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어 지역경제의 기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 전문건설업은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건설물량은 해가 갈수록 눈에 띄게 줄다 보니 업체 간 과당경쟁은 물론 건설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못해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대형 민간 건설사업에 입찰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원도급사의 갑(甲)질 등으로 인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건설산업은 사업을 수주해 '성장하자'가 목표였다면 지금은 '살아남자'가 우선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기는 곧 기회이며 지금, 이 대전환과 변화의 시기를 기회로 삼아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업체들은 기술개발 등 역량을 키워 치열한 하도급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 보안을 비롯해 지역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안전은 생명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안전의식은 근로자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원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 우리 사회의 철저한 감시를 필요로 합니다.

민선 7기, 이 전환의 시기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평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일자리가 풍성하고 청년들의 미래가 있는 도시, 가족이 행복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 건설을 목표로 출범하는 민선 7기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전문건설인 여러분들이 선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건설인들의 노고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허정문입니다. 먼저 전문건설인의 권익보호와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건설산업 부흥에 크게 이바지 해온 협회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북미회담 개최에 따른 한반도 리스크 완화, 보호무역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가계대출 부담, 입주물량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건설경기 둔화, 고용시장 침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성장 기조 속에 청년과 노년층 등 서민 주거불안 및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소득의 양극화, 고령사회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과 경영환경에도 LH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본연의 공적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양질의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전세, 매입임대와 같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연령과 세대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장기적 관점에서 구축,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량 후보지를 적극 확보하고, 부산시 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생태계에 부하는 다양한 전략사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인구·가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 혁명은 미래 건설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LH는 수십 년간의 핵심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미래사업 방향을 능동적으로 이끌고, 업무와 기술혁신으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쇠퇴하고 낙후된 부산지역 내 도심, 주거지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재생사업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관점에서의 사업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업과 역할분담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과 유관기관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융복합사업과 연계하여 최적의 사업모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의 성장과 발전은 산업경제 전반에 있어 매우 큰 영향과 파급력을 지닙니다. 이는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서민주거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LH 역할과 사회적 가치 제고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동반성장 등 건설문화를 혁신하고, 나아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협업으로 건설문화를 혁신하고 시너지를 창출합시다

허 정 문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본부장



협회 소식

❖ 제회의 및 행사

2018 회계연도 제1차 부산전문건설기술위원회의

부산시회는 4월 4일(11:00 / 협회 회장실) 「2018 회계연도 제1차 부산전문건설기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전문건설기술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장으로 지산특수토건(주) 대표이사 김형겸 위원, 부위원장으로 강호건설(주) 대표이사 강성호 위원을 호선했다.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업종별, 공종별 작업의 효율적인 방법, 공구의 사용 및 장비의 사용 방법 개선 등을 통한 원가절감 등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회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논의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나아가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지원, 산학연계 지원 등을 통해 회원사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부산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2017년도 실적 우수회원 대표자 오찬 간담회

부산시회는 5월 10일(12:00 / 서면 롯데호텔 소회의실) 2017년도 부산지역 전문건설공사 실적 우수업체 대표자를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와 협회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부산 전문건설업계의 발전 방안 등을 상호 논의하기 위하여 「실적 우수회원 대표자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물량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을 축하한다”고 말하며, “부산시회는 회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협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협회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부산시회는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확대 및 기업경영의 애로사항 등 참석한 대표들의 건의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참석자들에게 보다 단합되고 발전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해 줄 것도 당부했다.



2018년 건설안전기원제 및 부산전문건설인 황령산 벚꽃길 한마음 걷기대회

부산시회는 4월 10일 황령산 봉수대에서 부산광역시 정정규 건설본부장 및 건설관계관과 부산시회 대표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역 1,800여 전문건설인들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2018년 건설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또한, 당일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대강당 및 황령산 벚꽃길 일원에서 부산지역 1,800여 전문건설업체 임직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전문건설인 황령산 벚꽃길 한마음 걷기대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번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는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전문건설인들이 침체된 건설환경 속에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건설업계 스스로가 새로운 건설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줄 것을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등에 전달했다.

이날 낭독된 결의문에는 △SOC 사업 확대와 민간 건설 경기 부양책 마련 △시공참여형 건설인력 제도 도입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 △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투명한 하도급 입찰 시스템 도입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 △부실시공 사전 예방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시행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가 개선되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서 시작된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촛불이 되어 중앙회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돼 정부에 큰 울림으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어려운 경제상황과 일감부족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어두워 보이지만 ‘되면 한다’가 아닌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고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같이 극복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이번 걷기대회 참석자 모두는 금련산 청소년수련원부터 황령산 제2전망대까지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완주했으며, 부산전문건설인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부산 전문건설인들이 뜻을 모아 직접 조성한 “황령산 벚꽃길”을 함께 걸으며, 오늘 행사의 의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건설분야 전문가 법률상담 등 무료자문

부산시회는 6월 12일(14:00 / 부산전문건설회관 4층 회의실) 회원사의 고충해결과 당면한 애로사항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도움을 주기 위해 「건설분야 전문가 법률상담 등 무료자문」을 실시했으며, 회원사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법률·노무분야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

이날 상담에서는 부산시회 이윤근 자문변호사가 발주자 및 원도급사와의 분쟁에 대한 법적 대처방안 등에 대해 상담했으며, 여찬모 자문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방안,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관리, 4대 사회보험 및 퇴직금 분쟁 등 노무분야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상담이 이루어졌다.



2018년 개정 하도급법령·노동업무 설명회

부산시회는 6월 19일(14:00 /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회원사 소속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하도급법령·노동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령 주요 내용에 대해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나경복 사무관이, 건설업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변화 대응, 건설업 4대 사회보험 관리 실무 등에 대해 중앙회 최정일 자문노무사가 각각 강의를 진행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부산시회는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사를 위해 교육교재와 강의 동영상을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에 게재해 회원사들이 수시로 활용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제2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

부산시회는 6월 21일(07:00 /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2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조찬세미나에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재욱 교수를 초빙하여 “북한의 시장화 경향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경협 방향”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강연이 끝난 후 부산시회에서는 감사의 뜻으로 조재욱 교수에게 감사의 글과 캐리커처를 전달했다.



❖ 회원사 수주지원 및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중앙1군 건설대기업 영남지회 간담회

부산시회는 4월 12일(11:00 / 부산광역시청 12층 소회의실) 부산시 김기영 경제부시장, 최대경 도시계획실장 및 중앙1군 종합건설업체 영남지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중앙1군 건설대기업 영남지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수한 시공기술력을 보유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중앙1군 종합건설업체에서 시공 중인 부산지역 건설현장에 보다 많은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고 말하며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 확대는 부산시민의 분양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건설근로자 고용 창출, 지역 자재·장비 업체의 동반 성장이라는 유기적인 낙수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려개발(주) 김홍선 영남지사장은 “부산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실시 공하는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산종합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에 따른 최대 15%의 용적률 인센티브만큼 대폭 상향되어야 지역경제의 낙수효과가 발생된다”며 현행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김기영 경제부시장은 “부산 시민으로부터 얻은 분양 수익을 모두 수도권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지역에 일감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하도급에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고, 최대경 도시계획실장은 “하도급 참여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를 창조도시국과 연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대형종합건설업체 본사 방문 간담회

부산시회는 5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부산시 하도급관리팀과 합동으로 수도권 지역에 본사를 둔 현대산업개발(주), 한신공영(주), 현대건설(주), (주)부영주택을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시회와 부산시 하도급관리팀은 “최근 부산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도시 정비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어 지역 시민단체와 언론기관 등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 및 입찰참여 기회 확대에 하도급 참여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업체들은 “협회와 부산시가 수도권지역에 있는 본사까지 방문해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우수한 부산전문건설업체를 발굴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부산시회는 대형 종합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모집정보를 시기별로 파악해 회원사에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수주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참가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60여 명과 함께 5월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된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에 참여했다.

이번 호소대회는 우리 협회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생존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가 현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회 및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22개 건설단체에서 7,000여 명의 건설인이 참여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명분은 좋으나 사회적 합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4만여 전문건설업자를 고사시키는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추가비용 및 공기연장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개선해 줄 것”을 국회 및 정부에 건의했다.



부산광역시 2018년 상반기 대형공사장 현장방문

부산사회는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지역 내 13개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설부조리 및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등 건설부조리와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점검과 이의 사전예방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최근 부산광역시에서 위촉한 공정하도급 옴부즈만도 함께 참여하여 공사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 등을 점검했다.

한편, 부산사회는 최근 부산지역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각 현장의 하도급 공사에 보다 많은 부산전문건설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하고 각 공종별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이 필요할 경우 협회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안내했으며,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회장동정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간담회 참석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중앙회 부회장)은 김영운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회장단과 함께 4월 5일 국토교통부 김일평 건설정책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정부 정책동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협회는 “최근 변화하는 정부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전문건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담회 참석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운)는 4월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와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앙회 회장단과 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개선 △공기연장에 따른 하수급인 간접비 지급 개선 △하도급 공사의 물품으로 편법발주 개선 △공사용 지급자재 관련 협조 등에 대해 건의했다. 특히, 수급인이 간접비노무비, 경비, 보증수수료 등 간접비를 청구할 때 하수급인의 간접비도 포함토록 해달라는 요청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감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수급인이 하도급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건설공사를 현장설치 조건의 물품구매나 자재납품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부터 ‘동반성장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약자보호 및 불공정 관행 개선’을 목표로 3개 분야 8개 과제를 실천하고 있다.



조달청장 간담회 참석

김영윤 중앙회장, 김세원 부산시회장(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회장단은 박춘섭 조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공사 발주 활성화 △혼합 발주(일반경쟁, 협상계약, 마스) 개선 △하도급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공사원가에 반영 △공기연장 실비산정 시 하도급자의 사용 비용 반영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조달청 시설공사 자재가격 적용 개선 등 6개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김세원 부산시회장은 “조달청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용실적이 2014년 이후 겨우 4건 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발전을 위해 제도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춘섭 조달청장은 “적정공사비 지급 및 공사 품질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문건설업계에서도 신기술·신공법 개발,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을 통해 우리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선 7기 부산광역시장 인수위원회 위원장 방문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6월 21일 민선 7기 부산광역시장 인수위원회를 방문하여 박재호 위원장과 부산전문건설업계의 주요 현안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원·하도급자 간 수직관계를 수평·협력관계로 전환시켜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의무화하여 줄 것”과 함께 “대형프로젝트에 부산전문건설업체가 70% 이상 하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최대 5% ⇒ 최대 15%)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포장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포장공사 직접시공 근절”을 건의했다.

이에 박재호 위원장은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전문건설업계의 현안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산사회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회원소식

2018 건설의 날 회원사 수상 안내

6월 21일 개최된 「2018년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건설인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으로 부산사회 제11대 회원감사인 (주)주일건설 박강일 대표이사가 총리 표창을, 제11대 자문위원인 태영건설(주) 박판용 대표이사가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주)주일건설 박강일 대표이사



태영건설(주) 박판용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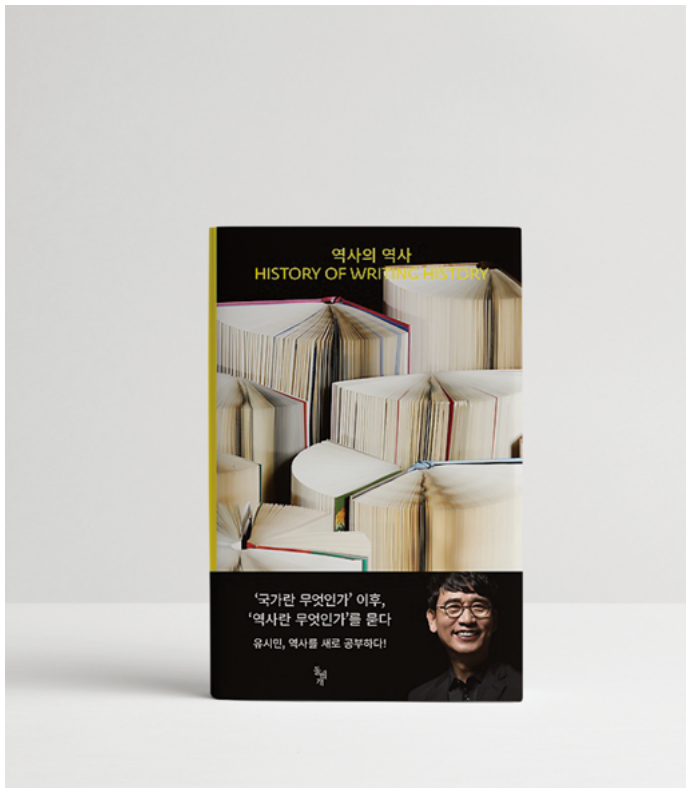
하루하루를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읽을 만한 베스트셀러를 소개한다.



※ 베스트셀러 순위는 '반디앤루니스'의 6월 넷째 주 판매량과 주문 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3위>와 <5위>, <7위>는 지난 호에 실린 『모든 순간이 너였다』와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 차지했습니다.

정리 송정은



역사의 역사

유시민 | 돌베개 | 16,000원



인간의 역사에 남은 역사서와 역사가, 그 역사가들이 살았던 시대와 그들이 서술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추적한 유시민의 역사 르포리타주 『역사의 역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과 이어진 촛불혁명을 마주하면서 저자는 2016년 겨울,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최초의 질문의 자리로 돌아가 이 책의 집필을 시작했다. 그의 지적 탐구를 담은 『역사의 역사』는 유시민이 공개하는 역사 공부 노트이자 독자들과 함께 역사를 읽는 초대장이다.

고양이 1,2

베르나르 베르베르 | 열린책들 | 12,800원



『고양이』(전2권)는 제목 그대로 주인공인 고양이 바스테트의 시각에서 인간의 문명을 바라보는 작품이다. 그녀는 '집사가 틀어 놓은 TV와 점점 찾아지는 골목길의 총성을 통해 그동안 당연시하던 안락한 일상이 무너지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타자의 시각을 도입하여, 인간 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이 지구에서 인간이 차지해야 할 적절한 위치를 끊임없이 고민해 온 저자의 문제의식이 그동안 좀 더 성숙해지고 발전해 왔음을 알게 된다.

BESTSELLER BOOK



어디서 살 것인가

유현준 | 을유문화사 | 16,000원

BEST
6

과연 내가 살고 싶은 곳은 어떤 곳일까? 건축과 공간을 읽는 방법을 소개하고 다양한 삶의 결이 깃든 좋은 터전을 제안하며 삶의 방향성에 맞춰 스스로 살 곳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돕는 건축가 유현준의 『어디서 살 것인가』. 저자는 어떤 공간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며 서로의 색깔을 나눌 수 있는 곳,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에 부합하는 도시로의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 마음의숲 | 13,800원

BEST
8

이 책은 우리가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준다. 불안하다고 무작정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세상의 정답에 굴복하지 말라고 응원한다. 인생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 나답게 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책은 내가 누구인지 고민할 시간조차 없는 현대인들에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선물한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수주지원

❖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및 건설업무등록자 도급 근절 추진

부산시회는 4월 18일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을 방문해 최근 부산지역 각 산업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장 신축·개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건설업 무등록업자의 불법시공 근절과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건설업 무등록자의 난립과 타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로 인해 적법하게 등록된 부산전문건설업체의 일감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는 부산지역 건설자재 생산업체 및 장비 임대업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지역 건설근로자의 고용창출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에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하고, 하도급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줄 것과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70% 이상 권장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도 소속 조합원사에게 함께 안내하여 부산전문건설업체의 일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는 삭감 위주의 예정가격 산정과 경직적인 입·낙찰제도로 인한 공사비 부족으로 경영여건이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협회에서는 국회,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한 결과, 국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입법을 발의(박명제 의원, 2018. 3. 22)했다.

이에 우리 협회는 금년 상반기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하고, 적격심사낙찰제 및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10% 상향, 중소기업 공사(100억원 ~ 300억원) 표준시장단가 적용제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200만 건설인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탄원서(부산시회: 595개)를 국회, 정당, 정부부처 등에 전달했다.

❖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추진

최근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진 자의 “갑”질과 함께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하도급 대금 미지급, 공사포기각서 사전 징구, 추가공사 불인정, 이면계약서 작성 강요 등)가 한계를 넘고 있어 부산전문건설업체에서는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4월 25일 초저가 하도급,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척결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현장의 실시공사인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확대될 수 있도록 부산지역 구·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주요 발주기관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부산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

부산시회는 5월 10일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중 2017년 시공능력평가액 업종별 상위 30% 이내인 우수 전문건설업체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 추천했으며, 시공기술력이 우수한 부산전문건설업체가 보다 많은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남천 삼익 재건축현장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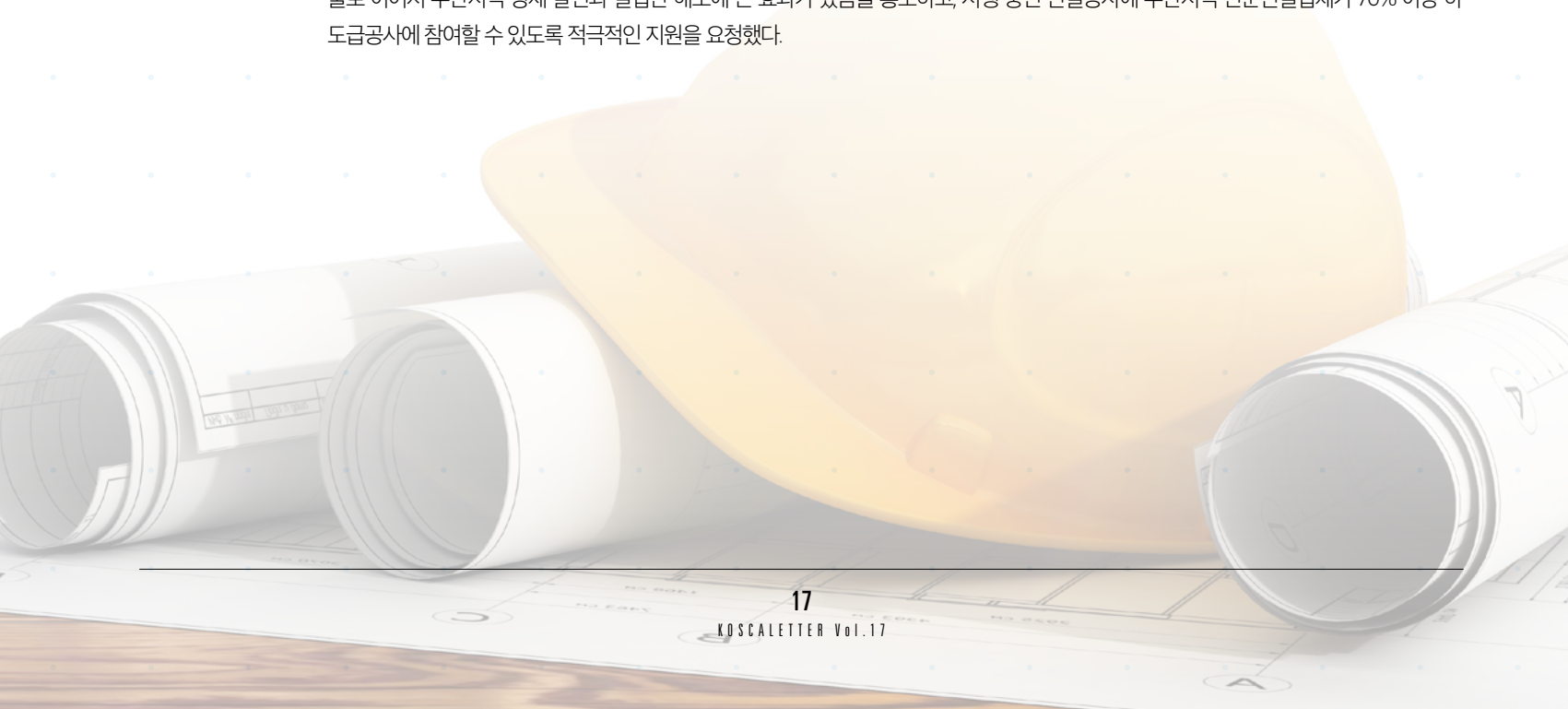
부산시회는 5월 28일 부산 남천 삼익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추진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 부산지역에서 대형 건설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중앙1군 종합건설업체들이 도급받아 자사의 연고지 전문건설업체(협력업체)들에게 하도급함에 따라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수주물량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부산 남천 삼익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산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 70% 이상을 권장하고 있는 것과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변경·고시에서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에 따라 최대 5%의 추가 용적률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를 홍보하며 부산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공사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추진

부산시회는 6월 14일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를 직접 방문해 건설공사현장의 실시공자인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는 부산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생산업체와 장비 임대업체의 동반 성장과 부산지역 건설근로자의 고용창출로 이어져 부산지역 경제 발전과 실업난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음을 홍보하고, 시행 중인 건설공사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70% 이상 하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부산시내 간선도로 포장공사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직접시공 근절 추진

2006년 12월 4일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에서는 2009년부터 7000㎡ 이상 부산시내 간선도로 포장공사는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자체 시공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 포장공사업체에게 도급주어 시공토록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7000㎡ 이상인 부산시내 간선도로 포장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부산시회는 6월 20일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를 방문해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 어려운 부산지역 민간경제가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포장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포장공사업체에게 도급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 재개발 등 대형건설공사에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추진

부산시회는 6월 21일 최근 부산지역에서 분양 예정인 연산 힐스테이트, 구포 반도유보라, 괴정 한신더휴, 동래 래미안아이파크, 동래 3차 SK뷰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 및 관할 구청 건축과를 대상으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협조 요청했다.

먼저 상기 시공사를 대상으로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와 부산지역 공사에 70% 이상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권장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안내하고, 업종별 시공기술력을 보유한 우수전문건설업체 추천이 필요할 경우 협회에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 관할 구청 건축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공사에 70% 이상 참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당부했으며, 시공사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과 같이 부산전문건설업체의 실질적인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해 줄 것을 건의했다.

❖ 2018년 하반기 발주예정 종합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추진

부산시회는 6월 28일 부산지역 주요발주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에도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발주할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초저가 하도급을 포함한 다양한 불공정행위 근절로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부실공사 예방,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및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극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에서는 2013년부터 부산광역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의무화하고, 부득이하게 동제로 발주가 불가능할 경우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는 「회계·계약분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 제도개선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소기업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반대

부산시회는 4월 9일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소기업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중앙회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자가 보유하여야 할 최소한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완화할 경우 부실 종합건설업체 및 페이퍼컴퍼니를 양산시킬 수 있다.

특히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 완화로 부실 종합건설업체가 양산될 경우 이들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는 공사대금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 또한 공사 미이행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이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시 처분강화 반대

부산시회에서는 5월 10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중앙회를 경유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적시적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 일일대여 및 단기대여 등 건설공사 현장여건에 따라 보증서 교부가 지체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에도 현장여건은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전문건설업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현행 처분기준을 유지하거나, 최근 1년 이내 위반횟수에 따른 처벌기준을 차등화 해 줄 것을 건의했다.

❖ 국가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계약조건 포함 반대

부산시회는 4월 9일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국가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중앙회를 경유하여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계약상대자(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계약법령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할 사항임에도 이를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서 계약조건에 포함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공공공사의 계약서에 근로조건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공사 10억원으로 상향 반대

부산사회에서는 6월 10일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공사를 현행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중앙회를 경유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공사 확대 시 수도권외의 편중된 발주 등으로 인해 지역이기주의를 유발시키고 지역 간의 분쟁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전문공사의 경우 지역제한 금액을 현행과 같이 7억원으로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대응책 마련 건의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을 타 산업과 동일하게 적용(20일 → 8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6일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현행 20일 기준에서도 건설일용근로자들은 보험료 원천징수를 거부하고 타 현장으로 이직하는 등의 문제로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보험료를 자체 부담하는 사례도 있으며, 자격취득 대상 확대로 설계내역에 반영된 보험요율을 초과하는 보험료를 전문건설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기 계약된 장기공사의 경우 보험요율이 낮게 반영되어 있어 전문건설업자의 보험료 부담은 불가피하다.

이에 부산사회에서는 4월 30일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 보험료 원천징수 거부에 따른 대책마련과 설계내역에 반영하는 보험요율 상향을 건의했으며, 개정(안) 시행 전 「건설현장 사업장적용신고」를 한 현장에 대해서는 현행 20일 기준일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 취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 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반대

부산시회에서는 6월 14일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개정의견을 중앙회를 경유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상수급인인 건설업자가 임금에 대해 연대하여 지급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도입·시행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 제도는 기 마련되어 있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실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은 보증기관의 보증한도 초과로 인해 추가 출자하는 등 경영애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는 사업주의 작업지시 불이행 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증가와 건설근로자의 시공기술력 향상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 반대를 건의했다.

❖ 하자보증서 발급 시 하자담보 책임기간 점검 건의

법령을 초과한 보증기간 설정 시 그 사유와 추가발생 보증수수료 등 비용 명시여부 점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할 경우 그 사유와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증수수료 등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종합건설업체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비롯한 다른 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초과해 도급계약서에 설정할 경우 그에 따른 사유와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증수수료를 명시하지 않은 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전문건설업체에게 전가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6월 14일 과도하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는 사례 개선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서 하자보증서 교부 전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초과할 경우 그 사유와 추가발생 보증수수료 등 의무 명시사항의 계약서 포함여부를 점검 또는 계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과도하게 설정되는 사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Feeling Movie



1관

신과함께-인과 연

개봉 | 2018.08.01.
 감독 | 김용화
 출연 | 하정우, 주지훈, 김향기

삼차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재판

<신과함께-인과 연>은 환생이 약속된 마지막 49번째 재판을 앞둔 저승 삼차사가 그들의 천 년 전 과거를 기억하는 성주신(마동석)을 만나 이승과 저승, 과거를 넘나들며 잃어버린 비밀의 연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원귀였던 수홍(김동욱)을 49번째 망자로 택한 삼차사는 결코 쉽지 않은 재판을 예상하지만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준다. 각자 위치에서 끈끈한 팀워크를 보여준 삼차사는 환생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저승과 이승, 과거를 넘나들며 활약한다. 삼차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재판, 강림(하정우)은 염라대왕(이정재)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불가능한 재판에 임한다. 그리고 베일에 감춰져 있던 삼차사들의 과거가 교차로 편집되며 한층 방대한 드라마와 밀도 높은 감정, 1부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관

공작

개봉 | 2018.08.08.
 감독 | 윤종빈
 출연 | 황정민, 이성민, 조진웅

적의 한가운데, 그 누구도 몰랐던 존재 북으로 간 스파이 '흑금성'

<공작>은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북핵의 실체를 파헤치던 안기부 스파이가 남북 고위층 사이의 은밀한 거래를 감지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첩보극이다. 1997년 12월 실제 안기부(현재 국가정보원)에서 주도한 '흑금성'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공작 끝에, 북의 중심부로 한 발 더 다가가는 '흑금성'의 모습은 앞으로 펼쳐질 스토리를 궁금하게 만든다. 연기 파배우 황정민, 이성민, 조진웅, 주지훈의 인상적인 연기가 더해진 <공작>은 매 순간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펼쳐 보인다. 또한, 기존의 액션 위주의 할리우드 첩보물과는 달리 남북한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함 속에서만 탄생할 수 있는 한국형 첩보영화의 탄생을 예고, 영화에 대한 기대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여름철 불청객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철이면 흔하게 유행하는 질환이 비브리오 패혈증이다. 올해 3월 여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이 검출된 데 이어 4월에 감염환자가 발생해 예년보다 빠르게 유행하고 있다.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비브리오패혈증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글 송정은

비브리오패혈증은 어떤 질환일까?

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다에 사는 '비브리오 볼니피쿠스균(Vibrio vulnificus)'에 의한 급성 패혈증이다. 이 균을 가지고 있는 어패류를 날 것 혹은 덜 익혀서 먹거나 상처 난 피부로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된다.

감염은 비브리오 볼니피쿠스 균이 몸에 들어오는 경로에 따라 창상감염형과 패혈증으로 나뉜다. 창상감염형은 해안에서 조개껍질이나 생선 지느러미에 긁혀서 생긴 상처를 통해 바닷물에 있던 균이 침입하여 상처 부위에 부종과 홍반이 발생한다. 증상이 급격히 진행되며 대부분의 경우 물질성 괴사가 생긴다. 잠복기는 12시간이며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이 없는 성인의 경우에는 항생제 투여와 외과적 치료에 의해 대부분 회복된다.

패혈증은 기존에 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익히지 않고 날것으로 먹었을 경우 발생하는 원발성 패혈증(비브리오 볼니피쿠스균 그 자체가 패혈증의 일차적 원인)이다. 급작스런 발열, 오한, 전신 쇠약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구토와 설사를 동반한다. 잠복기는 16~24시간이며, 증상이 발생한 뒤 30여 시간 이내에 대부분의 환자에게 피부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지에서 부종, 발적, 반상 출혈(피부에 검보라빛 얼룩점이 생기는 피하출혈), 멍, 수포형성, 궤양, 괴사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고위험군 치사율 50%

해수 온도가 높아지는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발생하는 질환이며 특히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오르는 6~9월 중 가장 많이 생긴다. 높아지는 기온에 바다로 피서를 떠나는 사람이 많은 여름철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우리나라의 경우 염분이 낮고 유기물질이 많은 곳, 갯벌, 모래가 많고 수심이 낮아 외기의 영향이 많은 서해안, 남해안에서 검출률이 높다. 갯벌과 그곳에 사는 어패류(조개류, 게, 낙지 등)에 균이 많아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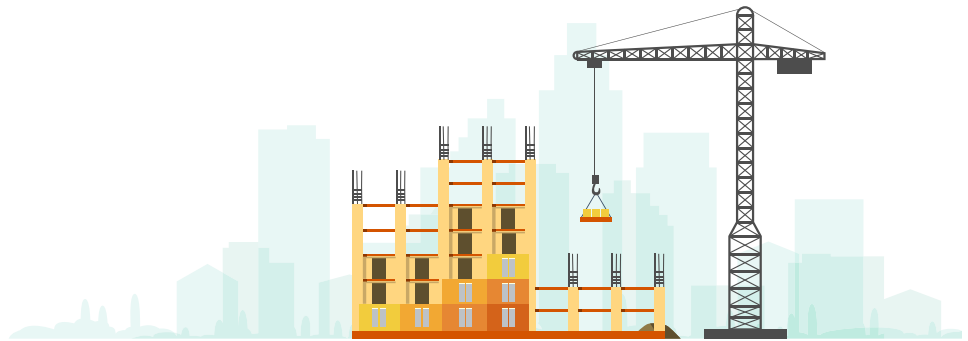
국내에서는 감염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에서 매년 20~4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며 치사율은 50% 이상이다.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으로는 간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 악성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환자, 장기이식환자, 면역결핍 환자가 해당된다.

건강한 여름을 위해 위생 관리가 필수

비브리오패혈증은 평소 위생에만 신경을 쓴다면 간단히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생활 또는 어패류 관리 및 조리 시 위생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하며, 85도 이상 가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 동안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9분 이상 더 요리해야 한다. 어패류를 조리할 때는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나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하고 어패류를 다룰 때는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 것을 좋지만 만일 피부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바닷물에 접촉했다면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를 씻어내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외적으로도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만약 감염이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야 한다.

04

신기술 소개



❖ 2018년 상반기 신기술 현황

지정번호 (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833 (2018.01.29.)	(주)효성, 극동건설(주), 삼광선재(주), (주)에이치엔파트너	철근간격 변경 및 데크판재의 호환이 가능한 탈부착 슬래브 거푸집 공법	판재 상부의 트러스거더와 하부의 “C”채널을 일체화하여 상하부의 구조재에 의해 데크 판재를 호환(합성수지패널 또는 단열재)하여 사용 가능하고, 트러스거더의 간격이 2열 또는 3열로 조절 가능하며, 슬래브 타설 완료 후에는 하부의 판재와 볼트, “C”채널을 해체하여 재사용하는 공장 제작형 탈부착 슬래브 거푸집 공법
834 (2018.01.29.)	(주)한진중공업, (주)건설기술개발공사, (주)홍익기술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길교이앤씨	벽체와 기초 사이에 영구 유사한지 시스템이 적용된 합성형라멘교 공법	라멘 벽체 하단부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분리시키는 분리재, 시공 중 전도를 방지하는 강봉, 단부 L형 보강재로 구성된 영구 유사한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벽체와 기초의 연결부에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하부구조의 규모를 축소시킨 합성형라멘교 공법
835 (2018.02.06.)	쌍용건설(주), GS건설(주), 롯데건설(주), (주)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주)씨엠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주)케이씨씨건설,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주)디알비동일	H형 단면과 U형 단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시공개선형 합성보(BESTOBEAM) 공법	보 단부의 H형 단면과 중앙부 U형 단면의 조합 및 U형 단면 상부에 전단연결재 앵글로 이루어진 합성보 공법

지정번호 (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836 (2018.02.23.)	(주)세광종합기술단, (주)세일종합기술공사, (주)에스앤씨산업	프리캐스트 코핑과 긴장재의 일부를 단부에서 비부착시킨 PSC거더 및 데크를 활용한 조립식 잔교 공법(SPC 잔교 공법)	연결부재, 중공형 원뿔대형과 받침부재가 설치된 프리캐스트 코핑을 강관말뚝의 두부에 거치한 후, 강관말뚝의 두부와 코핑의 중공부에 속채움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강관말뚝과 코핑을 일체로 결합한 다음, 비부착 충전재를 사용하여 긴장재의 일부를 단부에서만 비부착시킨 PSC 거더와 PSC 데크를 가설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완성하는 조립식 잔교 공법
837 (2018.04.05.)	동부건설(주), (주)이산, 한동건설(주), (주)진영종합건설, (유)로템건설	강관작업구를 이용한 연약지반 소구경 하수관 추진 공법(SMART 공법)	강관을 지반에 수직으로 관입시킨 후 내부를 굴착하고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강관작업구를 완성하고, 강관작업구 내부에서 리드관 추진, 오거 굴착과 동시에 선두관 추진 및 굴착 오거 회수 후 본관 추진의 공정으로 시공되는 연약지반 소구경(150mm~400mm) PVC 하수관 추진 공법
838 (2018.04.05.)	(주)웰텍	수직집수관과 수평집수관이 연결된 복류수 집수매거 공법	내부에 교체 가능한 필터여재가 설치된 수직집수관과 역세장치가 설치된 수평집수관이 연결된 STS 권선형 스크린관을 사용한 복류수 집수매거 공법
839 (2018.05.08.)	지씨피코리아(주), 현대엔지니어링(주)	수산화동이 혼입된 기능성 복합재를 적용한 방근 콘크리트	기능성 복합재(수산화동, 합성 매크로 섬유, 균열폐쇄성 혼화제)를 적용함으로써 고품질의 누름콘크리트와 화학적 방근성능을 동시에 구현하여, 기존 누름층의 소극적인 기능과 역할에서 탈피해 물리적, 화학적 효과를 동시에 실현하는 융복합 방근콘크리트로 재탄생시킨 기술
840 (2018.05.28.)	(주)케어콘, 에스큐엔지니어링(주), (주)평창건설, (주)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염분제거제, PVA섬유혼입 보수모르타르와 아크릴계 표면코팅제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	염분제거제로 오염된 콘크리트에서 염분을 추출하고 PVA섬유 혼입 보수모르타르를 이용하여 단면복구하고 표면코팅제로 마감하여 미세균열 발생을 억제하고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

※ 출처: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www.kcnet.or.kr) ⇒ 신기술현황 ⇒ 지정현황(건설신기술)

Story 01

나이 들어서 좋은 점

100세 생일을 맞은 할아버지에게 한 사람이 물었다.
 “할아버지, 나이 들어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보험설계사들이 더 이상 보험 들라고 귀찮게 하지 않더라고.”



Story 02

초보 공무원의 실수

순진한 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동사무소에 첫 출근을 한 날이었다.

점심시간에 혼자 동사무소를 지키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왔다.

아주머니: 저기,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초보 공무원: (처음 대하는 고객이라 긴장하여) 본인이세요?

아주머니: (조금 당황하며 잠시 생각하더니) 본인이 와야 하나요?



“

부끄러운 성공보다
좋은 실패를 택하겠다.

박두병 두산 창업주

”

MANAGE- MENT

이달의 경영어록

“

품질은 우리의 자존심이자
기업의 존재 이유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

05

건삶인 제31호

+ 전문건설인의 삶을 누러오면서 경험했던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



(주)삼강기업

대표이사

김 점 식

뚝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건설인

“준비된 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의 '기(企)'는 사람 인(人)과 그칠 지(止)가 결합된 단어다. 수시로 멈춰 서서 자기의 갈 길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려면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어령 교수는 저서 '그래도 바람개비는 돈다'에서 “자기 길을 찾기 위해 발뒤꿈치를 들어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앞일을 생각하고 꾀한다”고 풀이했다.

‘오는 기회는 잡고, 없는 기회는 만들어라’는 말이 있지 않나. 항상 깨어있는 상태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준비하는 것.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도전하는 정신이야말로 기업인이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이라 하겠다.

김점식(64) (주)삼강기업 대표. 기회를 낚아챌 줄 아는 건설인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재주를 지녔다. 이제 그의 삶을 따라가 보자.

그는 부산 토박이다. 옛 교통부 주변에 살면서 등산하다시피 산꼭대기에 있는 자성초등학교를 오르내렸다. 그 덕에 다리가 무척 튼실하다. 환갑을 훌쩍 넘은 나이거늘 등산하면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할 정도. 한마디로 ‘꽃중년’을 즐기고 있다.

상수도배관업체인 한국수철관에 입사한 그는 계열사인 포항의 동서화학에서 십수 년간 근무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했다. “건축용 페인트가 아닌 선박, 교량용 페인트를 취급했었죠. 그런데 페인트 제품을 시공업체가 전권을 쥐고 선택하더라고요.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시공업체가 ‘노’ 하면 모든 게 끝이에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직접 시공에 나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서울 광화문 전화국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자, 그는 때를 놓치지 않고 미련 없이 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전화국 케이블 페인트칠 공사에 뛰어들었다. 전화국 공사에 페인트를 팔 생각을 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당시, 김 대표는 그 기회를 꼭 거머쥐었던 거다. “정보가 무척 중요했죠. 자신감 하나만 믿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덤벼들었는데 이후 2년간 전국 전화국 공사현장을 돌며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사업 기반을 그때 다졌다고 봐야겠죠.” 전 직장인 동서화학에서 그에게 “전화국 공사를 마치면 재입사하라”고 매달릴 정도였다니 그의 정보력과 영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만하다.

전화국 공사현장을 누비면서 그는 소중한 경험치를 가슴에 새겼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인건비도 잘 모를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열심히 공들여서 공사를 잘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임을 깨달았습니다. 억만금을 주더라도 얻지 못할 소중한 재산이죠.”

그에게 두 번째의 도약이 시작됐다. 페인트 판매와 납품만으로는 도저히 성이 차지 않았던 그는 면허를 내서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었다. 1996년 도장 면허를 따서 삼강기업을 세웠고, 방수 면허도 획득했다. 그런데 아깝싸! 대한민국을 거세게 뒤흔든 외환위기가 들이닥치고야 말았다. 하지만 그는 15년 이상 영업하며 쌓은 경험으로 위기를 기회로 돌려세웠다. “사업장 곳곳에서 신뢰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속출했어요. 저는 그걸 제 사업으로 끌어들었죠. 믿음을 바탕으로 건물 구조에 맞는 페인트, 다시 말해 고객의 니즈(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겁니다. 현장로만 거래한 데다, 고유가 덕분에 성공의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약속과 신뢰는 생명줄이다. 내 시간 못지않게 상대방 시간도 중요하고, 신용은 한 번 깨지면 다음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한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 초창기 사업 불황도 그렇게 해서 극복해냈다.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 번번이 입찰에서 떨어지는데 밤잠이 안 오더군요. 한잠을 고민한 끝에 결국 해결책을 찾아냈죠.”

그것은 남들보다 한발 앞서 움직이는 거였다. 그래서 아파트 설명회를 이용하기로 결심한 김 대표. 공사 공고가 나기 전 경쟁 업체들보다 앞서 주민들을 만나 해당 아파트의 하자 원인과 그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친절하고 상세히 설명했다.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를 믿기 시작했고, 공사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는 입소문이 났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잡는 그의篤심이 발휘되면서 사업은 훨훨 날기 시작했다.

“노후 아파트와 집을 속속들이 알아야 맞춤형 방수와 도장을 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산성비에 약한데, 노후 아파트 옥상은 비, 눈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데다, 햇빛에 가장 오래 노출되는 곳이어서 균열보수가 매우 중요해요. 콘크리트 하자 원인만 천 가지가 넘습니다. 벌어진 틈새로 열기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난방비도 더 많이 나오는 건 물론, 균열로 물이 새면서 벽지에 곰팡이가 슬기도 하죠.”

그는 햇빛에 오래가는 페인트는 없다고 단언한다. 한마디로 비싸고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오래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실제 일조나 강수 상황, 그리고 자체 환경에 적합한 보수작업이 따라야 하며 그러려면 해당 건물을 속속들이 파악해야 한다고.

현장에서 정신없이 뛰던 김 대표가 4년 전 대학 건축학과에 입학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이제 곧 건축학사가 된다. 나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부에 열정을 불태우는 김 대표에게서 늙스그레한 60대의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사업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항상 준비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김 대표의 말을 듣다 보니 이승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생각난다. 토끼보다 느린 거북이의 승리로 끝나는, 다시 말해 상식을 뒤집는 결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건 ‘교만한 자의 빠름’보다 ‘성실하고 준비하는 자의 느림’이 아닐까.

글 최원열



05

건설인 제32호

+ 전문건설인의 삶을 누려오면서 경험했던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



(주)보광

대표이사

윤영갑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는 건설인

“기술력이 곧 경쟁력입니다.”

그는 '선한 화순인'이다. 서글서글한 눈매가 정겹고, 표정 또한 푸근하다. (주)보광 윤영갑(61) 대표. 그는 고향 화순을 떠나 서울을 '찍고' 부산으로 내려왔다.

고향 화순을 등지고 서울 가구업체에서 일하다 부산에 내려온 게 1980년. 전통살문의 하나인 완자살문 제작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당시 서울과 부산의 가구 기술이 10년 차이가 났어요. 서울에서는 완자살문을 가르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무작정 타향인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완자살문은 완자무늬(卍)를 넣어 살을 가로세로로 넣어 짠 문으로, 무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에 결실과 장수, 행복 등 좋은 일을 상징한다. 전통 가옥 안채나 사찰 창호문에 많이 쓰였다. 대부분 수작업으로 만들기에 엄청난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다.

윤 대표는 1998년 외환위기 때 김해에서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녹산공단으로 들어왔다. 주위에서 나라 전체가 어려운데 힘들 거라며 만류했지만 내 공장을 갖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결단을 내렸다. “당시 땅값이 평당 55만원 선으로 비싸지 않을 때였지만 그 금액도 힘겹게 대출내어 어렵사리 시작했어요.”

그토록 어렵사리 시작한 사업이었다. 그는 전문건설업뿐만 아니라 관급 목재가구의 창호 인테리어를 취급한다. 주로 학교 교실문이나 아파트 실내문 등 목재가구를 제작하기 때문에 남들은 한가할 때인 방학철이 가장 바쁘다. 직원 15명이 눈코 뜰 새 없이 움직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허접한 회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 제작에서 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전문건설업체다. 조달청 입찰을 통해 부산 경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시장을 넓혀나가는 중소기업이기도 하다.

보광이 전국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다. 비록 당치는 작지만 KS마크와 친환경 인증을 갖고 있기 때문. 두 가지를 모두 갖춘 회사는 매우 드물다. 전국적으로도 단 13개밖에 안 된다. 그러나 입찰에서 경쟁력을 갖는 건 당연지사.

윤 대표의 명함을 보면 ‘더 베스트(THE BEST)’가 가장 먼저 적혀 있다. 최고의 기술로 승부를 내겠다는 거다. 실제로 그는 베스트를 향한 열정이 대단하다. “중소기업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인증과 유지비용이 들지만, 4종의 KS와 2종의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것이 기술과 실력으로 인정받겠다는 저의 의지입니다.”

윤 대표의 열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지난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까지 인증을 받았다. 그 외 다수의 특허와 디자인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과제를 성공시켜 한 단계 더 성장하리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품질, 혁신, 협력, 환경’이란 문구가 회사 사무실 가장 잘 보이는 벽면에 붙어 있다. 보광이 지향하는 목표다. 품질과 혁신, 환경은 앞서 설명했다. 그러면 협력은? 윤 대표에게 협력은 전 직원이 똘똘 뭉쳐 일함으로써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어떻게 해야 직원들을 똘칠 수 있을까? 윤 대표는 주저 없이 ‘상대 배려하기’를 꼽았다. 동생은 업무를 총괄하고, 다른 직장 다니던 아들도 데려와 함께 일한다. 가족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 모든 직원을 내 동생, 내 아들처럼 대하지는 마음은 행동에 그대로 묻어낸다. 직원들의 근무연수는 평균 10년을 넘는다. 그만큼 직장을 믿고 편안하게, 하지만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17년 차 박미진 부장의 말을 들어보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지만 그 이유



로 저의 커리어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랄수록 엄마의 자리가 필요하던 걸 느꼈을 때,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사정을 아시고 먼저 탄력근무제를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윤 대표에게 한 가지 불만과 잊혀지지 않는 고통이 있다. 먼저 불만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페어플레이를 해야 하는데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다. “투자에 힘 쏟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는 기업과 무면허에 세금을 안 내는 기업이 경쟁하면 누가 유리할까요. 기술력으로 일정 부분 버티고는 있지만 저가 수주에는 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그에게 아로새겨진 고통의 흔적은 뭘까. 바로 영호남 차별 의식이다. 사실 그는 고향 화순보다 부산에서 훨씬 오래 살았다. 부산이 고향과 다름없지만 호남 말씨로 인해 그는 사업 초창기 혹독한 차별을 받아야 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학연, 지연, 혈연 어느 것 하나 내세울 끈이 없으니 오직 뛰어난 기술을 믿고, 좋은 제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넘겨주는 것만이 유일한 대응책이었다. 그는 말없이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 승리의 여신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는 이제 도약의 단계에 올라섰다.

인생 철학을 묻자 거침없이 ‘비움의 미학’을 강조했다. 그가 라이온스클럽과 장학회 등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비움의 미학이란 ‘채움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같다. 일찍이 노자가 갈파하지 않았던가. 받으려면 먼저 주고, 채우려면 먼저 비우라고. 그렇다. 지금 우리는 더 비우고 덜 채워서가 아니라 덜 비우고 더 채워서 문제다.

글 최원열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시공자 간의 분쟁 등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존의 「발코니 창호공사 표준계약서(공정위 표준약관 제10060호)」를 폐지하고,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공정위 표준약관 제10079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시행하였다.

1.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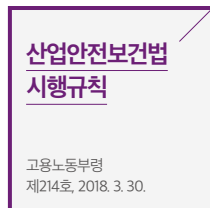
- 목적(제1조)
-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제2조)
- 계약내용(제3조)
- 소비자와 시공업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제4, 5조)
-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제6조)
- 계약해제 및 위약금(제7조)
- 공사변경(제8조)
- 양도양수(제9조)
- 하자보수(제10조)
- 분쟁의 해결(제11조)
- 관할법원(제12조)

2. 제정·시행일자: 2018. 3. 21.(수)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정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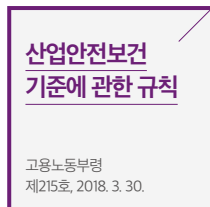
가. 타워크레인 등 위험한 기계 대어받은 자 책임 강화(제50조)

- 타워크레인을 대어받아 사용하는 경우 충돌방지 조치 및 작업과정을 영상으로 기록·보전

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교육 강화(별표8)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일용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시간 강화 (현행: 2시간 → 개정: 8시간)

2. 시행일자: 2018. 3. 30.(금)부터



1. 개정 주요 내용

가. 타워크레인 사용 시 신호수 배치(제146호)

- 사업주는 타워크레인 사용 작업 시 근로자와 조종수 간에 신호업무 담당하는 사람을 배치

2. 시행일자: 2018. 3. 30.(금)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계설비법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에서 기계설비법을 공포·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계설비법 주요 내용

법률
제15599호, 2018. 4. 17.

1. 기계설비법 주요 내용

- 법 제명을 기계설비법으로 함
- 기계설비산업의 발전, 안전,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 기계설비의 발전, 기술기준, 유지관리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함
- 도급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기계설비유지관리 교육의무 부과
- 기계설비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 기계설비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기술기준 고시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의무부과
- 관리주체에 기계설비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확인 의무 부과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신설

2. 시행일자: 2018. 4. 18.(수)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기타법령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법 개정 주요 내용

법률
제15612호, 2018. 4. 17.

1. 개정 주요 내용

- 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사유 확대(안 제12조의3)
- 나.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안 제22조의2 및 제30조)
- 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 조사시효 확대(안 제23조)

2. 시행일자: 2018. 10. 18.(목)부터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단, 제12조의3 제3항 및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대통령령
제28848호, 2018. 4. 30.

1. 개정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범위 확대(안 제18조)

- 출석요구 불응, 조사 거부·방해·기피, 질서유지 의무 위반 포함

나. 과태료 액수 산정요소 일원화 및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4)

-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가 많을수록 가중

2. 시행일자: 2018. 5. 1.(화)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시행

기획재정부에서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를 개정·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예규 개정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383호, 2018. 6. 4.

1. 개정 주요 내용

가. 계약공무원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 계약정보 등 계약내용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의3 신설)

2. 시행일자: 2018. 6. 7.(목)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제2018-348호, 2018. 6. 18.

1. 개정 주요 내용

- 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을 추가(안 제17조 제1항)
 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범위에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을 추가(안 제23조 제1항)

2. 공포일자: 2018. 6. 18.(월)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교통부에서는 환경관리비 사용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21호, 2018. 6. 18.

1. 개정 주요 내용

가.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제출 시기 등 명확화(제61조)

- 환경오염방지시설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사용계획 제출
-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나.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관리 사항 등 명확화(별표8)

- 환경보전비 산출 시 직·간접공사비 병행 계상
- 폐기물처리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명확화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명확화 등

2. 시행일자: 2019. 1. 1.(화) (시행 후 발주된 건설공사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생활권 수목진료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나무병원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나무병원 제도 시행

1. 공포일

- 산림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998호(2018. 6. 28.)】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3호(2018. 6. 28.)】

2. 시행일자: 2018. 6. 28.(목)부터

3. 나무병원 및 나무의사 등 제도 도입 개요

- 생활권 수목(아파트, 공원 등)에 대한 국민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기후변화 및 국제교류 증대에 따라 수목피해가 다양해지는 추세
 - 수목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주로 실시하고 있어 부적절한 약제살포 등 국민안전 위협요소 산재
 - 2018. 6. 28. 이후부터는 나무병원과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 가능(수목치료기술자는 처치만 가능)

○ 수목진료의 정의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 나무병원의 정의

-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의9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 나무의사의 정의

-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 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수목치료기술자의 정의

-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 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나무병원 등록기준

종류	업무범위	인력	자본금	시설
1종 나무병원	수목진료	1. 2018. 6. 28. ~ 2020. 6. 27. - 나무의사 1명 이상 2. 2020. 6. 28. 이후 -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1억원	사무실
2종 나무병원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	1. 2018. 6. 28. ~ 2020. 6. 27.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나무의사 나. 수목치료기술자 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2020. 6. 28. ~ 2023. 6. 27. -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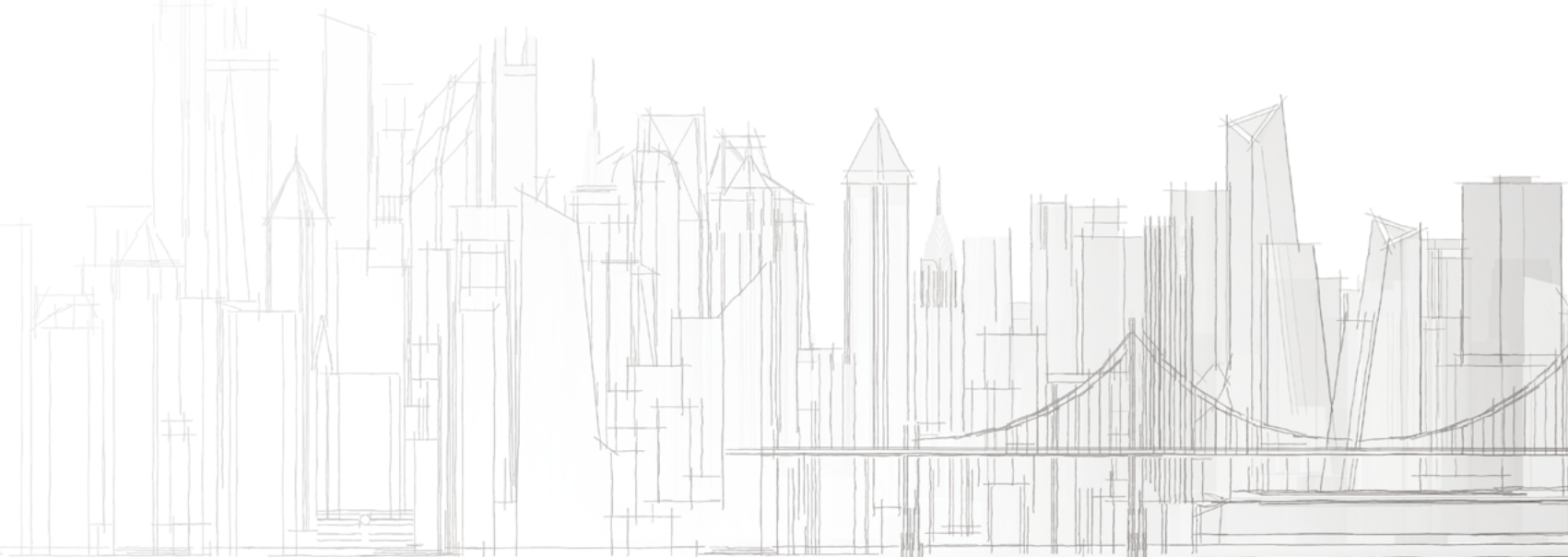
※ 2종 나무병원은 2023. 6. 28. 폐지

※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상 기술자와 중복 인정 안 됨.

※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5. 나무병원 등록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산림복지과(☎051-888-3840)로 문의



SPE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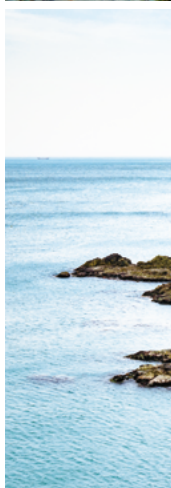
06 + 부산의 명소(민락수변공원&이기대공원)

바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민락수변공원 & 이기대공원

글 송정은 사진 수영구 문화관광

파도소리를 들으며 산길과 해변길을 번갈아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전국에 몇이나 될까. 바다와 숲으로 둘러싸인 부산은 여름에 더 아름답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지금, 도심 속 여유와 낭만을 즐기러 떠나보자.



바다와 어우러지는 공간, 수변공원

📍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361

전국구 핫플레이스로 유명한 민락수변공원은 1992년 8월 공사가 시작돼 1997년 5월 완공되었다. 이 공원은 바다와 휴식공간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수변공원으로 해운대와 광안리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 면적 30,752㎡ 규모로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바닥에는 컬러 블록을 깔고 화단과 그늘집,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바다를 바라보며 각종 행사도 관람할 수 있는 3,040㎡에 달하는 스탠드는 만조 때 바닷물이 들어와 발을 담글 수도 있는 공간이다.

수변공원 뒤로는 횃집이 즐비해 있어 찰랑대는 바닷물과 광안대교의 야경을 바로 눈앞에 두고 상상한 회를 즐길 수 있다. 좌판에서 직접 고른 생선을 바로 앞 작은 횃집에서 손질해 초장과 아채까지 듬뿍 얹어 주니 기분도 좋다. 부드럽고 상상한 회 한 점이 그리운 날, 부담 없는 가격에 바다와 야경까지 즐길 수 있는 민락수변공원에서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조물주의 선물 같은 그곳, 이기대 공원

📍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로 105-20

이기대 도시 자연공원은 장산봉 동쪽 산자락에 바다와 면하여 있는 공원이다. 구름다리, 해안 산책로, 어울 마당, 솔밭 쉼터, 산책로, 약수터, 큰고개 쉼터, 장산봉, 오륙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약 2km에 달하는 해안 일대를 산책하는 데는 약 2~3시간이 걸린다. 인간의 손때를 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넓은 바다와 자연이 빚어낸 기묘한 바위들이 있어 더 아름다운 곳이다. 어울 마당에서 동생말까지 잘 정비된 산책길을 따라 걷다 보면 몸은 물론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곳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 지역이라 오랫동안 민간인들의 출입이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1999년 10월경 바닷가 바위에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면서 남구청에서 이 일대를 정비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이기대라는 이름의 유래에는 재밌는 설이 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수영성을 함락시킨 후 경치 좋은 곳을 골라 축하 잔치를 열었는데 그때 기녀가 왜장을 술에 취하게 한 후 왜장을 끌어안고 물 속에 떨어져 죽어 그 기녀를 기리기 위해 '이기대로 부르다가 나중에 '이기대'가 되었다는 설과 두 기생의 무덤이 있어서 '이기대'가 되었다는 설 등이 있다. 이밖에 경상 좌수사가 두 명의 기생을 데리고 놀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라고도 한다.

<여행 TIP!> 이기대 공원 최적의 산책 코스

바다를 보면서 무난하게 산책을 즐기고 싶다면 어울 마당에서 시작하여 동생말까지 걷는 것을 추천한다. 이 코스는 약 30분 정도 걸리며 산책길에서는 공룡 발자국, 해녀 막사, 철책, 구름다리 등을 볼 수 있고 바다 건너 해운대와 광안대교를 조망하기에도 좋다.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 및 건설현장 점검 안내

산림청에서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제품이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제품에 '규격·품질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국유림관리소에서는 목재생산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목재제품을 실제 소비하고 있는 건설현장, 가구공장, 가구판매장 등을 방문하여 취급하고 있는 목재제품을 점검(폼알데하이드 배출량 등)할 계획에 있어 부산시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1. 근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 제45조

2. 점검일정: 2018년 4월~연중

3. 대상업체: 관내 목재제품 취급 건설현장 및 가구제작공장 등

4. 점검내용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사항 확인
-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목재제품 사용여부
- 필요할 경우 목재제품 시료채취(폼알데하이드 배출량 집중점검)

※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유통·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품질·규격 미표시, 표시기준 위반, 품질인증 허위표시 등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현장 집단적 노사관계 초기대응 요령 및 실무매뉴얼 활용 안내



건설현장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동조합법 준수를 통한 상호 동등한 교섭력 확보와 호혜적 교섭환경을 바탕으로 한 상생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에 협회에서는 2018년 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의 합리적 대응과 노동관계조정 규정 미숙지로 인한 회원사 불이익 방지를 위해 「건설현장 집단적 노사관계 초기대응 요령 및 실무매뉴얼」을 마련하여 회원사에 안내했으며,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시 합리적 대응책을 마련과 안정적 현장 운영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건설현장 집단적노사관계 초기대응 요령 및 실무매뉴얼」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부산지역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 등 활용 안내

부산지역에서 발주되는 대형건설공사의 대부분을 수도권 등 타 지역 대형건설업체들이 도급·시공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도 이들의 자사 연고지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고 있어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뿐만 아니라 건설자재 생산업체, 건설장비 대여업체까지도 연쇄적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4월 20일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부산지역 경제발전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에 부산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사자재 사용과 부산지역 소재 건설장비 임대, 그리고 부산 거주 건설근로자 고용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회는 하도급관리팀과 함께 부산지역 대형건설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70% 이상 하도급 참여 확대와 지역생산 자재 사용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스팔트포장 전문교육 이수

부산시 내 도로포장 공사 참여 시 동 교육 필히 이수해야...

부산광역시에서는 도로포장 품질 향상을 위해 「아스팔트포장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 내 도로포장 공사 참여시 동 교육 이수자만 현장투입이 가능함에 따라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며,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일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1. 부산광역시 아스팔트포장공사 교육 이수제

- 공사발주 시방서 명기사항
 - 착공계 제출 시 도로포장 전문기술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
 - 교육 미이수일 경우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이수 하겠다는 “교육이수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시공현장 투입 가능
- 교육주기: 3년
- 건설기술교육원 포장시공 교육 이수자 동 교육 이수 인정

2. 아스팔트포장 전문교육 과정

- 교육대행기관: 영남건설기술교육원
- 교육장소: 영남건설기술교육원 부산교육장(자갈치역 2번 출구)
 - ※ 부산시 서구 충무대로 277 에크펠리스 2차, 3층
- 교육대상: 현장에 투입되는 현장대리인, 장비기사, 굴착감리 등
- 교육비: 150,000원
-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 영남건설기술교육원 홈페이지(<http://cte.or.kr>)에서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지난 교육일정: 2018. 5. 23. ~ 24.

기초 고용질서 준수 안내



부산시회는 4월 23일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으로 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분쟁예방을 위해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1. 임금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현금(통장이체 가능)으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위반 시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서면근로계약(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 사용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와 그 밖에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하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고, 2012년부터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이를 교부해야 함.
※ 위반 시 벌칙
- 일반근로자: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4일 이내 시정, 미시정 시 사법처리
-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3. 최저임금 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무효가 됨.
※ 위반 시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도시가스(고압가스) 배관의 파손 예방을 위해...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가스(고압가스) 배관의 굴착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에 의거 굴착공사 전에 미리 굴착공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배관 설치 및 보수를 위한 도로 굴착공사와 건물 신축공사 등 토지 굴착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 파손사고가 발생하면 가스폭발 위험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굴착공사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안전하게 굴착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굴착공사 착공 전에 지하매설 가스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1. 굴착공사 신고대상

-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의 도로, 아파트 단지, 사유지 내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수작업 제외)

2. 신고처: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 전화: 1644-0001
- 인터넷: www.eocs.or.kr
- 모바일: m.eocs.or.kr

3. 신고절차

- 굴착신고 ⇒ 접수번호발급(온라인) ⇒ 배관유무확인(한국가스안전공사) ⇒ 안전조치(한국가스안전공사) ⇒ 굴착개시통보(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 입회요청(굴착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 공사 개시

4. 미신고 시 벌칙사항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국도교통부에서는 최근 잦은 타워크레인 사고로 유압실린더 파손 문제가 있는 특정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개선된 유압실린더로 교체 후 구조변경검사를 득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부산시회는 6월 4일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KNF중공업(주)에서 제작한 KNF355I, KNF336I 모델

- 개선된 유압실린더 교체 후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사용 가능

기획재정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 안내

협회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68 ⇒ 52시간) 시행(2018. 7. 1.)과 관련하여 전문건설업계의 피해 방지 및 건설현장에서의 혼란 방지를 위해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계약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줄 것을 지속적인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에서는 협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6월 4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했으며, 부산시회에서도 6월 7일 관련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고 공기연장 또는 추가 공사비 발생 시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 기획재정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 주요 내용

- 2018. 7. 1. 이전 발주된 계약의 경우
 -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 준공일 변경이 곤란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 및 야간작업 지시 등 조치를 실시하고 추가금액을 지급
 - ※ 하도급업체 이행분도 포함됨을 명시

- 2018. 7. 1. 이후 발주되는 계약의 경우
 - 주당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결정

※ 근로기준법 개정(2018. 3. 20.)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2018. 7. 1.부터 적용
- 상시근로자 299인 ~ 50인: 2020. 1. 1.부터 적용
- 상시근로자 49인 ~ 5인: 2021. 7. 1.부터 적용

근로기준법 개정·시행에 따른 설명자료 안내

부산시회는 6월 8일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관공서 공휴일 민간확대 적용, 연차휴가 등) 관련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를 회원사에 안내하고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설명자료에는 법 개정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내용, Q&A 등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주요 내용 및 대응방안 안내



부산시회는 6월 20일 법정 최대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 → 52시간)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 주요 내용과 정부대책 및 건설현장 대응방안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

- (근로시간 단축) 1주당 최대 근로시간: 68h → 52h
 - 단계적 시행(상시근로자 수 기준)
 - ※ (300인 이상) '18. 7. 1. / (299인~50인) '20. 1. 1. / (49인~5인) '21. 7. 1.
 - 근로시간 미준수 시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양벌규정: 사업주벌금(2천만원 이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 (특별연장근로) 30인 미만 사업장 한시적 허용('21. 7. 1. ~ '22. 12. 31.)
 - ※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 52h + @ (8h) = 총 60h
- (법정공휴일) 민간 확대(국경일, 명절 등)
 - (300인 이상) '20. 1. 1. / (299인~30인) '21. 1. 1. / (29인~5인) '22. 1. 1.
 - ※ 단계적 시행(상시근로자 수 기준)
-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 근거 마련
 - ※ 탄력근로제 개선 준비기간 설정: '22. 12. 31.까지 방안 마련

2. 정부대책

- (기재부)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계약금액 조정 업무지침 시달('18. 6. 4.)
 - (신규발주 공사) 주당 최대 52시간 반영하여 계약기간 결정
 - (진행 중 공사) 준공지연 불가피 시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준공일 변경 곤란할 경우 추가금액 지급(하도급 포함)
- (국토부)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8. 5. 25.)
 - (공기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 제·개정 시 공기연장 요구 가능
 - (계약금액 조정)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 확대 등 제·개정 시 금액 조정
 - ※ 공공공사 표준공사기간 기준 마련 검토 중(금년 중 시행 목표)

3. 대응방안

- 정부대책을 적극 활용하여 기 진행 중인 공사는 공기연장 또는 계약금액 조정
- 적절한 공정계획 수립 및 작업시간 관리 철저
- 탄력적 근로시간제 현장 적용 및 활용방안 적극 모색
- 각 현장별 특성에 맞게 생산성 제고를 통해 영향 최소화 노력 등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유예 안내

부산시회는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사항을 안내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는 건설 업무(설계·시공 등) 수행 전 최초교육(기본, 전문)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위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사업자 및 교육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전국적으로 부족하고, 교육신청 폭주로 인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건설기술자가 많은 관계로 우리 협회는 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그 결과,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2021. 12. 31까지 유예**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공포되어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며,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1.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법률 제15667호, 2018. 6. 12.)
- 시행일: 2018. 12. 13.

2. 건설기술자 여부 및 교육대상 조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부산지회(☎051-553-4624)
- 한국건설기술인협회(homenet.kosca.or.kr) ⇒ 교육정보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이수현황 메뉴에서 조회

행정안전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운영요령」 안내



협회에서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라 전문공사 및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운영 요령」을 지자체에 통보(2018. 6. 26.)했다. 이에 부산시회는 6월 28일 회원사에 관련내용을 안내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1.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운영 요령」 주요내용

○ 2018. 7. 1. 이전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이 체결된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한 경우 사실 확인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이행될 부분에 대해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 포함)을 조정
-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휴일 또는 야간작업지시 등 적절한 조치 후 추가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 2018. 7. 1. 이후 발주되는 계약의 경우

- 주당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결정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8년 7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부산시회는 6월 26일 2018년도 7월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고용허가신청(18년 7월)

가.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7. 2.(월) ~ 7. 16.(월)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 한 경우 7일

나.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440명

다.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상한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1억당 0.4명	공사금액 1억당 0.3명(현장별 최대 30명)
15억원 미만	5명(계수 미적용)	3명(계수 미적용)

라.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고용센터)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마.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7. 18.(수) ~ 7. 26.(목)

○ 고용센터는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을 확정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은 대기번호 부여

바.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 7. 27.(금)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안내

※ SMS문자 및 EPS홈페이지(www.eps.go.kr)

사.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7. 30.(월) ~ 8. 1.(수)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아. 기타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02-3485-8452~3)에서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을 진행 중임.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26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 신청



건설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와 기능수준 향상을 통한 건설공사 품질향상 도모를 위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우리 협회 등 건설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6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오는 10월 5일(금)에 개최된다. 이에 부산시회는 회원사 소속 우수 기능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1. 참가신청 기한: 2018. 7. 27.(금)

2.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3. 신청장소: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건설정책과)

4. 대회 관련 사항

가. 대회일시: 2018. 10. 5.(금), 08:00 ~ 18:00

※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9. 22.(목) 입소 및 접수

나. 장소: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충북 음성군 소재)

다. 기능경기 종목: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철근, 타일, 도장, 조경,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수

라. 참가신청 자격

- 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전문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당해 해당직종 기능인(상시고용된 자, 현장채용기능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현장(또는 참가직종)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본 기능경기대회의 참가직종에 입상한 사실이 없는 자

마. 제출서류

- 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신청서 1부
- 참가선수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기능경기대회 안전이행 서약서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이력서 1부

바. 입상자 시상계획

- 1위(각 종목별 1인): 상금 200만원 및 국토교통부장관상
- 2위(각 종목별 1인): 상금 150만원 및 대회장상
- 3위(각 종목별 1인): 상금 100만원 및 대회장상
- 장려상(각 종목별 2인 이내): 상금 70만원 및 대회장상

사. 입상자 특전

- 입상자 전원: 해외산업연수 실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 참가자 전원 참가장려금 지급
- 부산광역시장 표창대상자 추천(예정)

5. 문의사항

가. 제출서류 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공지사항 참조

나. 기타 의문사항은 우리시회 건설정책과(051-633-0260)로 문의

2018년도 경영상태 평가 및 2017년도 건설공사 실적 확정



우리 협회에서는 7월 2일 정부-공공공사의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에 적용할 2017년도 전문건설공사실적을 확정하고 2017년도 공사실적 확인서 및 2018년도 경영상태 등 제증명서를 발급하며, 올 하반기부터 발주되는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2017년도 말 기준 전문건설업종 경영상태평균비율(7월 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이 확정 고시되었음을 안내하였다.

■ 2017년도 말 기준 전문건설업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표

구 분	실내건축	토 공	습식방수	석 공	도 장	비계·구조물해체	금속구조물·창호
부채비율	80.10%	82.89%	83.31%	59.75%	70.50%	81.65%	80.33%
유동비율	148.98%	158.43%	108.28%	244.48%	118.92%	120.71%	145.46%
구 분	지붕판금·건축물조립	철콘·콘크리트	상·하수도설비	보링·그라우팅	철도·궤도	포 장	수 중
부채비율	90.28%	77.46%	73.02%	74.80%	58.05%	62.10%	73.62%
유동비율	93.58%	168.26%	176.76%	188.23%	173.02%	226.20%	142.29%
구 분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강구조물	철강재	삭 도	준 설	승강기
부채비율	93.92%	79.02%	111.99%	140.91%	124.86%	180.38%	86.08%
유동비율	120.70%	111.45%	117.73%	113.53%	62.69%	120.32%	110.72%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	-	0.14%	-	0.08%	-

※ 적용기간: 2018년도 말 기준 업종별 평균비율 공시 전까지 사용

전문건설업종 부채비율은 평균 88.81%로 전년(99.45%) 대비 △10.64%포인트 낮아졌으며, 유동비율은 평균 141.46%로 전년(140.12%) 대비 1.35%포인트 높아졌다. 업종별 부채비율은 철도·궤도 58.05%로 가장 낮았고 준설 180.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부채비율은 15개 업종이 낮아졌으며 철도·궤도(△139.84%)와 철강재설치(△36.07%) 업종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석공(2.69%), 도장(2.71%), 상·하수도설비(13.26%), 수중(7.94%), 강구조물(4.92%), 삭도설치(1.00%) 6개 업종의 부채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업종별 유동비율은 석공 244.48%로 가장 높고 삭도설치 62.69%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 93.58%로 낮게 나타났다. 전년대비 유동비율은 10개 업종이 높아졌으며 철도·궤도(51.41%), 보링·그라우팅(36.11%), 포장(22.43%)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중(△28.45%), 강구조물(△27.75%), 지붕판금·건축물조립(△13.30%)의 하락이 폭이 크며, 총 11개 업종의 유동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공시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공시는 **2018. 8. 1.부터 시공능력평가 효력 발생**으로 관련 제증명서(시공능력평가확인서, 시공능력순위확인서, 시공능력확인서)가 발급되고, 건설업 등록수첩에 기재가 시작된다. 부산시회는 전문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제외하고 코스카 홈페이지(www.kosca.or.kr)에 공시한다.

업체별 공시내용은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업종별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업종별 2017년도 건설공사 실적 및 보유기술자 수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 & A



지난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3월 27일 공포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를 핵심내용으로 합니다. 헛갈리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2018년에 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 구체적 사례로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CASE 01 법 적용대상인 배우자 범위

Q 배우자 아닌 다른 가족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나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A 공직자 등의 가족 중 배우자만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금품 등이 제공된 경우,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 사정이 있어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ASE 02 민간회사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직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Q - (건강검진) 우리 회사에서는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10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아도 될까요?

- (콘도이용) 우리 회사에서 보유한 콘도 이용권을 매년 추첨을 통해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도 콘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 (명절선물) 우리 회사는 명절마다 모든 직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과일이나 상품권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 선생님인 경우에 받아도 될까요?

- (회사행사) 우리 회사는 매년 연말 송년회를 부부동반 모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년회에서는 공연관람과 10만원 상당의 식사·음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언론사 직원인 경우에 함께 참석해도 될까요?

- (할인혜택) 제가 다니는 가전회사에서는 직원들이 회사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국립대학 교직원인데, 할인혜택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민간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소속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해당 회사와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인 경우에도, 민간회사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CASE 03

배우자의 회사 동료, 개인적 모임 등에서 제공하는 금품 등

Q 저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사립학교 교사입니다. 민간회사를 다니는 제가 회사 동료들과 식사를 하거나 경조사비를 받을 때에도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이 적용되나요?

A 공직자 등을 배우자로 둔 민간인이 회사 동료 직원과 식사를 하거나 동료 직원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 등인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CASE 04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1

Q 저의 배우자는 국립대학의 교수인데, 제 생일에 배우자가 지도하는 대학원생이 5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받아도 될까요?

A 대학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대학교수의 배우자가 대학교수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되나, 사안의 경우와 같이 지도·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액범위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CASE 05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2

Q 저의 배우자는 시청 건축과에서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산악회 회원이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는데, 저에게 20만원 상당의 등산장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받아도 될까요?

A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가액 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수수가 금지됩니다.

CASE 06

공직자 등의 신고의무 및 제재대상 1

Q 저는 지자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관내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지인이 정기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자 제 아내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A 보건소에서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공무원과 정기 점검을 앞둔 약국 운영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무원의 배우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선물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배우자로 하여금 반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CASE 07

공직자 등의 신고의무 및 제재대상 2

Q 저는 산하기관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제 담당 산하기관에서 제 아내에게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왔습니다. 평소 알던 사이라 별도로 소속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A 아내가 받은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므로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위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은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재되지 않습니다.

유권해석

01 ★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건설공사(공사기간 1개월 이상)의 4대 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관련

[질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히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는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대상은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가계약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임에도 원가내역서 상에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반영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가계약 유무를 떠나 1개월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상기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율에 따라 각각 산정하여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때 계약의 종류가 단가계약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여지가 없으며, 문의하신 내용의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4대 보험 적용 대상이라 사료되오니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 국민신문고 질의회신(1AA-1508-131576, 2015.8.21.)

유권해석

02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에서 지체상금 의무대상이 누구인지 여부?

[질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건설공사에서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 공종인 건축공사업과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 공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가 서로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바, 부계약자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는 선시공 공종으로 당초 공사예정표 일정보다 신속히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의 공기 지연으로 공사준공일을 넘어서 지체상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발주기관에서는 부계약자는 성실시공을 인정하고, 부계약자 시공분은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지체상금 부과는 주계약자에게만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회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2절 '4-나-2)'에 따라서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시공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직접 시공 각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절 '4-다-1)'에 따라서 구성원 자신이 시공한 분에 대하여 각각 하자의 책임을 지며, 동절'3-마-1)'에 따라 작성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6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시공 부분에 따라 각자 책임지며, 제7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로 전문건설업체인 경우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의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부계약자가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 그 공사 준공에 대한 부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공기지연 사유를 유발한 주계약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국토해양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유사민원 상세보기

건설판례
03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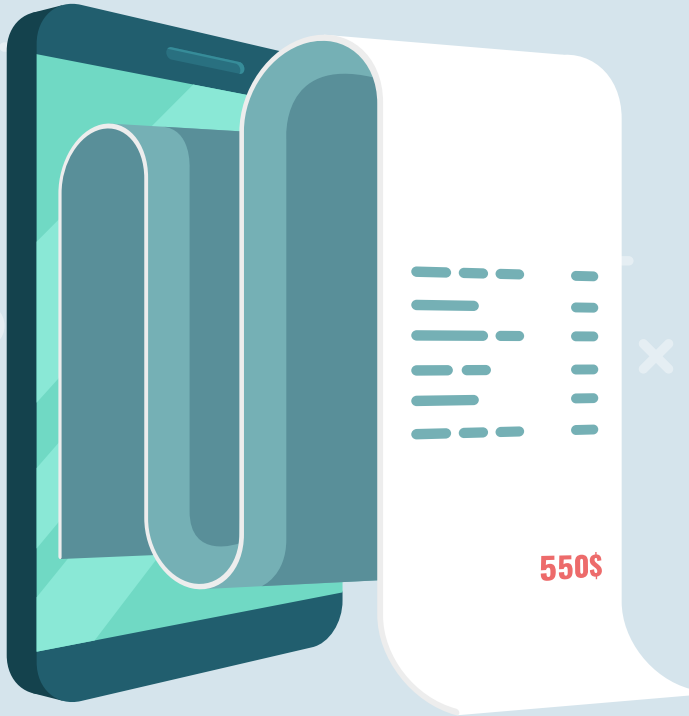
[판시사항]

- [1]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 별도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의미 및 원사업자가 결정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3]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가 정하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4]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서 열거한 조항들 모두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당연히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 [5]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 또는 제5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듯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
-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의미는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황, 시장 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거래규모·규격·품질·용도·원재료·제조공법·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3]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5호가 정하는 '합의 없이 일반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이 없는데도 단가 등을 낮게 정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합의 없이 일반적으로' 대금을 결정하였는지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의 유무와 정도, 거래관계를 지속한 기간, 문제된 행위를 전후로 한 시장 상황 등과 함께,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않고 협의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그 제약의 정도, 결정된 하도급대금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4]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4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여러 위반행위와 이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조치를 하나의 규정에 포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열거한 조항들 모두에 대하여 특수한 형태의 시정조치인 지급명령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체적 위반행위의 법적 성격과 내용,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는 급부의 법적 성격, 법문상 지급명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특정되는지, 해석상 그 산정 기준 금액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 [5]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 위반으로 인한 지급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간편하게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나 제5호 위반으로 인한 지급명령이 허용된다면 그 지급명령은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에 따라 정하여졌을 대금액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호 위반행위나 제5호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품목이나 거래별로 개별적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위반행위 전의 단가가 당연히 지급명령액 산정의 기준액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1호 위반행위나 제5호 위반행위의 성질상 이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실제 정하였을 대금액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1호 위반행위 또는 제5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하도급 분쟁 해법

[하도급대금 미지급]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룰 때 대처요령

기성금이나 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거래 상대방이 이런저런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L 토공사 전문건설업체는 S 종합건설업체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렇지만 정산을 이유로 대금집행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L 업체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부도 위기에 몰렸다. 이때 S 업체가 수천만원 감액을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해왔다. 어쩔 수 없이 L 업체는 그 요구조건을 받아들였다.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유동성 위기에 몰려서 큰일 날 수 있었다.

이런 경우가 현장에서는 자주 일어난다. 특히 그런 행위를 악의적으로 일삼는 회사가 있다고 들었다. 이 경우 대금을 감액해 주더라도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즉 자금사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서류를 미리 상대방에게도 보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그런 불공정거래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알게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했는데 감액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문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는 경우인데, 그럴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대금 지급요청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시스템 상에서 발행이 되지만 공문은 내가 일방적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국세청을 통한 요식행위이지만 내용증명은 내가 언제든지 보낼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느라 최종 공사 후에 너무 늦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너무 늦으면 대금지급기일에서 60일의 기산일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대금지급기일이 확정돼야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의무, 지연이자 지급의무 등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 공정거래연구소 이경만 소장의 하도급 분쟁 해법

회원사 질의·응답



Q.01

도시철도 공사수행
철도운영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45호, 2017.12.29.】개정으로 2018.6.29.부터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공사 시 철도운영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함. 단, 상기 고시에는 사업주체(발주자)가 철도운영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업체(건설업체)에서 채용해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 사업주체(발주자)가 시공업체(건설업체)에게 철도운영안전관리자를 배치할 것을 요청해왔다면 설계내역을 검토해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요청해 공사금액을 증액 받을 수 있음.

Q.02

시설공사 적격심사 실적 등
평가기준일은?

- >> 금년 2월 15일 협회에 신고한 건설공사 실적신고 자료는 2018.7.2. 확정되며, 2018.7.2.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해당 실적 및 경영상태평가자료가 적용됨.
-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에서 '각 평가 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Q.0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및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의 의미는?

-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중에 상응 배치하여야 함.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야 함.
- >> 귀 질의의 경우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기간이란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5의 비교의 규정에 의거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도 포함되며,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당해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임.

Q.04

계약금액 변경 시 변경된
계약금액 기준으로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배치기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는 계약금액이 아닌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계약금액 변동에 따라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도 있음.

Q.05

하도급 최초 계약 시 하도급률은
82%를 상회하였으나 설계변경 사항을
반영한 하도급 변경계약을 시행한 결과
하도급률이 82% 미만으로
낮아졌을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의거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하는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심사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제도의 취지는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적정 품질을 확보하고 저가 하도급 예방을 통한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최초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률이 82% 이상으로 하도급계약의 적정여부를 심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변경계약 시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함.

Q.06



300㎡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건축주가 직접 할 수 있는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하고 있음.

1.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2017.12.26. 건설산업기본법이 상기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8.6.27.부터 시행됨.

>> 또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하고 있음.

1. 체육시설 중 골프장(9홀 이상에 한정), 스키장 및 자동차경주장
2.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연장, 보안시설, 묘지
3.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산지 또는 해안에 설치되는 사방시설, 길이가 1km 이상인 호안시설
4.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사설 중 미로



살아있는 유기체, 곡선의 미학

카사 밀라

카사 밀라는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지은 마지막 도시 건축물로, 바르셀로나의 중심가인 그라시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바르셀로나를 상징하는 건축물 중 하나로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 건축을 주문한 사람은 페레 밀라(Pere Milà)라는 사업가였는데, 자신의 가족이 거주할 공간, 세를 줄 공간 등을 만들기를 원했다. 그 당시에는 흔치 않은 자주식 지하주차장, 중앙난방, 온수, 전기, 엘리베이터 등의 현대식 시설까지 갖췄다. 건축주의 이름 때문에 이 집을 밀라 하우스, 카사 밀라라고 부른다.

건축을 '살아 있는 유기체'라고 생각했던 가우디는 '산'을 주제로 이 건물을 디자인했다. 석회암과 철을 이용해 파도처럼 굽이치는 부드러운 곡선 모양의 외벽에서 가우디의 입체적인 설계를 살펴볼 수 있다. 가우디는 석회암을 연마하지 않은 상태로 쌓아 올려 더욱 독특한 이미지를 추구했다. 외관을 감싼 부드러운 곡선은 각 층의 내부까지 이어져 건물 전체가 마치 파도가 물결치는 듯 환상적인 느낌을 준다. 가우디가 석공들의 조각품까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는 등 온갖 정성을 쏟은 건축물로 유명하다. 어느 곳에도 직사각형의 공간은 없고 건물 모서리도 사선으로 잘랐다. 당시에는 '라 페드레라(채석장)'라고 불리며 혹평을 받았지만 지금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건축물이다.

건물의 3개 부분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어 오디오 가이드를 포함한 투어에 참가하면 건물 안을 구석구석 관람할 수 있다. 동굴 같은 출입구로 들어가면 1층에는 고야, 샤갈 같은 유명 화가의 작품을 전시 중이다. 한 층에 네 가구가 있고 가장 꼭대기 층에는 가우디의 작품 평면도, 슬라이드 비디오 등을 상영하는 에스파이 가우디 박물관(Espai Gaudi)이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사소한 작은 정보도 나중에는 유용하게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도움 되는 **생활 속 팁**을 알려드립니다.

꼭 기억해두시고 필요할 때 요긴하게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TIP 01

확대된 행복주택 입주 자격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올해부터 만 19세에서 만 39세면 누구나 지역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주거지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혼인가간이 7년 이내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TIP 02

초간단 손 세정제 만들기

조금만 신경써도 웬만한 질병은 대부분 예방할 수 있기에 손 씻기는 건강한 생활의 기본이다. 자주 쓰는 만큼 구입비용도 만만치 않은 손 세정제를 간단한 재료로 집에서 만들어보자. 재료는 소독용 에탄올과 정제수, 글리세린으로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세정제를 담을 깨끗한 휴대 용기를 준비하고 환기가 잘 되게 창문을 열어놔야 한다. 소독용 에탄올과 정제수, 글리세린을 4:1:2 비율로 섞고 휴대 용기에 담으면 끝이다.

TIP 03

깨끗하게 칫솔 세척하는 법

깨끗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치질은 물론 칫솔에 남은 세균까지 잡아야 한다.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물론 소독도 필수다. 먼저 소금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넣어 잘 녹이고 소금물에 칫솔을 30분 정도 담가준다. 시간이 지난 뒤 칫솔을 깨끗한 물로 행구고 말리기만 하면 된다. 칫솔을 되도록 매일 세척하고 칫솔모뿐만 아니라 입안에 들어가는 칫솔 대까지 세척해야 한다. 더 간단하게는 구강청결제를 이용하면 된다.

10

회원사 현황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18. 4. 1. ~ 6. 30.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주)고센건설 지재성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6층(구서동) T. 051-515-3653 보유업종: 도장	 (주)관우티앤씨 김정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2-1, 402호(거제동, 영진빌딩) T. 051-507-7530 보유업종: 토공, 철근-콘크리트	 (주)대림모노레일 성부섭, 김현태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로233번길 26(식만동) T. 051-972-8707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
 금정건설(주) 김대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79, 3층(장전동) T. 051-516-0993 보유업종: 상-하수도설비	 (주)관우티앤씨 김서곤		 대운건설중기(주) 오영태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48, 4층 452-1호(범일동, 자유시장) T. 051-635-9725 보유업종: 포장
 (주)덕유건설 조정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180, 306호(신평동, 신익상가) T. 051-292-7008 보유업종: 포장	 (주)동림메탈 심민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601, 4층(남산동, 상경빌딩) T. 051-582-0551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	 (주)무림이엔지 황동주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47, 2층(수안동) T. 051-555-7321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
 (주)신성건설 류홍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39, 4층 T. 051-727-9638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	 (주)신일 최종수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129번길 67, 3동 401호 (온천동, 온천 대륙코리아나아파트) T. 051-714-2555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	 (주)에스디365 조규행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46 T. 051-723-0065 보유업종: 실내건축
 에이원디앤씨(주) 이종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218번길 63, 3층(수안동) T. 051-715-0715 보유업종: 비계-구조물 해체	 (주)유성엘리베이터 하강호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79번길 30-8, 101동 114호 (구포동, 구포동성가든타워) T. 051-341-6070 보유업종: 승강기설치	 (주)제이디컨벤션 조석준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87번길 75, 2층(거제동) T. 051-866-2300 보유업종: 실내건축
 (주)천명테크닉스 김경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365, 상가145동 211호 (하단동, 가락타운1단지) T. 051-294-9593 보유업종: 습식방수	 청림건축(주) 이준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86, 3층(좌동) T. 051-746-3639 보유업종: 습식방수	 태양토건(주) 노학식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31번길 29, 2층(부평동4가) T. 051-242-1420 보유업종: 토공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주)평광기업 정 진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48(덕포동) T. 051-365-0404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	 (주)하랑기획 최 광 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42번길 9(재송동) T. 051-782-0893 보유업종: 실내건축	 한성건축 이 덕 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천로 182, 2층(모라동) T. 051-303-3710 보유업종: 실내건축
 (주)해강기업 오 한 석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10번길 74, 상가동 302호 (양미동, 삼성아파트) T. 051-945-1464 보유업종: 포장	 (주)현승토건 송 성 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길 118 T. 051-728-4493 보유업종: 상·하수도설비		

10

회원사 현황

부산 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18. 4. 1 ~ 6. 30.

전출업체 현황	전입업체 현황
(주)다통(대표: 박지혜, 서울)	강한엔지니어링(주)(대표: 강정훈, 서울)
두원건설(주)(대표: 이태희, 충남)	(주)다원건설(대표: 권영아, 경북)
(주)바론건설(대표: 김진완, 경기)	(주)대명이엔지(대표: 안종하, 안재복, 경남)
(주)성우지엠(대표: 유영호, 경남)	대찬건설(주)(대표: 이선미, 경남)
(주)엠에스건설산업(대표: 정규연, 경기)	세운산업개발(주)(대표: 김주경, 충남)
유니온건설(주)(대표: 이일구, 광주)	아림산업(주)(대표: 전진울, 경북)
(주)일동이엔지(대표: 전창환, 경북)	웅산건설(주)(대표: 이호제, 김종민, 강원)
(주)일진토건(대표: 장중배, 경남)	(주)코림(대표: 이승민, 경남)
지이티건설(주)(대표: 문오성, 광주)	(주)탄성(대표: 김필순, 경남)
(주)코스(대표: 이상곤, 경남)	탑런컴퍼니(주)(대표: 김학수, 충남)
(주)프로젝트도(대표: 김복조, 충남)	(주)태백토건(대표: 정현주, 경기)
-	(주)태황이엔씨(대표: 조선미, 경남)
-	현광기업(주)(대표: 김희규, 경남)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018. 6. 30. 기준

지역	업체수	등록수	지역	업체수	등록수
중구	34	69	연제구	140	224
동구	48	96	해운대구	205	278
서구	23	27	수영구	109	166
사하구	71	93	부산진구	175	241
영도구	26	38	북구	81	105
동래구	166	224	사상구	124	154
남구	86	132	강서구	179	250
금정구	227	338	기장군	197	302
			합계	1,891	2,737

(주)YTN 복지혜택물 가입절차 및 이용 안내

※ 회사사 임직원 모두가 가입 가능하며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부산사회 회원사가 공식사이트에 가입 후 이용하게 되면, 가전제품과 패션잡화, 영화티켓,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에서 30%~40% 추가 할인 가능합니다.

01. 가입방법

- ① 인터넷 가입 ▶
협회전용 인증메일 가입사이트(www.ygoon.com/kosca21) 접속
- ② 모바일 가입 ▶
카카오톡(내프로필 → 나와의 채팅) 오픈 후
<http://ymall.ygoon.com> 입력

02. 회원가입

이메일 인증: 본인이 평소 이용하는 이메일 주소 입력
※ 모바일 가입 경우 이름 앞에 반드시 기업명 기재
(ex. 전문건설 홍길동)

03. 비밀번호 등록(특수문자, 영문, 숫자 포함 8자리 이상)

04. 로그인

05. 복지몰 이용



인터넷 가입 절차

www.ygoon.com/kosca21 접속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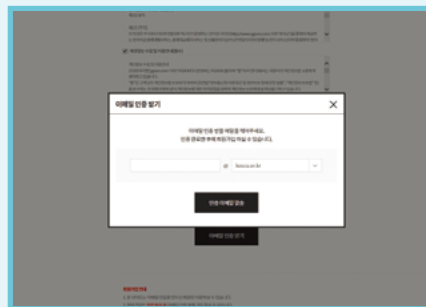
02

회원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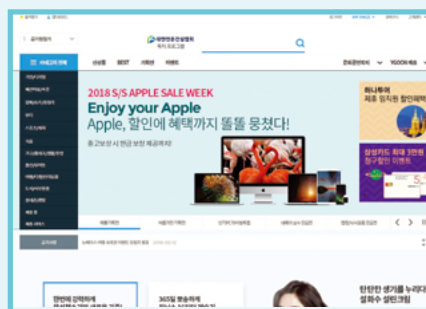
03

이메일 인증



04

로그인 후 이용



장마철 건설현장 주요 사고사례 및 안전대책

출처 안전보건공단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늘어난 하천 급류에 휩쓸림 (사망3, 부상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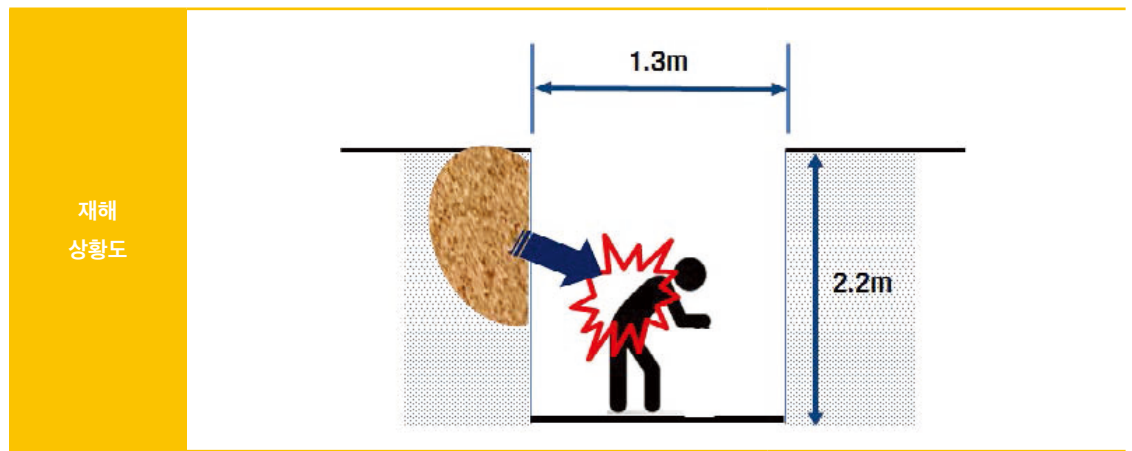
공사명	○○○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발생일시	'17.07.04.(화), 15:40경
재해형태	익사	재해정도	사망 3명, 부상 1명
소재지	경남 창원시	공사규모	L=720m,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재해개요	'17.07.04.(화), 15:40경 경남 창원시 소재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소속 피재자 4명이 복개하천 내부에서 벽체 균열 보수작업을 하던 중 국지성호우*로 빠르게 늘어난 하천 급류에 휩쓸려 3명 사망, 1명 부상한 재해임. * 재해 직전 10분간 28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함.(시간당 37mm)		



안전대책	○ 약천후 시 작업중지 조치 철저
	- 사업주는 복개구조물 내부에서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국지성호우, 태풍 등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안전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안전대책	※ 감시인의 배치 실시 [권고 사항]
	- 사업주는 복개구조물과 같이 외부 기상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운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무전기 등으로 신호체계를 정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빗물이 복개구조물 내부로 유입되는 경우 작업자에게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오수관로 매설 중 토사 무너짐 (사망1)

공사명	○○○관로정비사업(2차)	발생일시	'17.07.22.(토), 13:50경
재해형태	무너짐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전북 ○○군 ○○리	공사규모	오수관로 19.5km 매설
재해개요	'17.07.22.(토), 13:50경 전북 ○○군 ○○리 소재 (주)○○종합건설이 시공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피재자(56세,남)가 오수관로 매설작업 중 굴착벽면의 토사가 무너지며 재해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안전대책	<p>○ 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조치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 관로작업을 위해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지반상태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지층조건, 굴착 깊이, 지하수위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굴착면 안정성 검토를 통한 적절한 기울기를 산정하여 굴착하여야 함. 														
	<p>※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반의 종류</th> <th>기울기</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보통흙</td> <td>습지</td> <td>1:1 ~ 1:1.5</td> </tr> <tr> <td>건지</td> <td>1:0.5 ~ 1:1</td> </tr> <tr> <td rowspan="3">암반</td> <td>풍화암</td> <td>1:0.8</td> </tr> <tr> <td>연암</td> <td>1:0.5</td> </tr> <tr> <td>경암</td> <td>1:0.3</td> </tr> </tbody> </table> <p>- 굴착면의 토층이 균질하지 않을 경우(이질지층) 흙막이 가시설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p>	구분	지반의 종류	기울기	보통흙	습지	1:1 ~ 1:1.5	건지	1:0.5 ~ 1:1	암반	풍화암	1:0.8	연암	1:0.5	경암
구분	지반의 종류	기울기													
보통흙	습지	1:1 ~ 1:1.5													
	건지	1:0.5 ~ 1:1													
암반	풍화암	1:0.8													
	연암	1:0.5													
	경암	1:0.3													

2018년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2016. 2. 12. 이후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경우 제외) 및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으로써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업체의 경우는 동 교육 이수 시 최대 15일 감경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가. 교육일자 및 장소(부산)

회차	교육일자	교육장소
3차	2018. 10. 12.(금)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 타 지역 및 다른 일정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edu.kosca.or.kr) 확인 후 신청 가능.
※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비용이 과다 지급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람.

나. 교육내용: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다. 교육대상:

- 건설업 신규등록자(추가 면허등록 제외) [의무교육]
'16. 2. 12. 이후 건설업 신규등록 업체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제12호]
- 영업정지 처분 이후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업등록업자 [임의교육]
'16. 2. 12. 이후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 교육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영업정지기간 최대 15일 감경 → 법인 대표자 수료 시 15일, 등기부상 임원 수료 시 1인당 5일 감경(최대 3인)
※ 감경 받은 후 1년 이내 다시 위반 시 감경 불가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3(시행일: 2016. 2. 11.)]
- 교육 참석대상자
법인: 대표자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중 1인
개인: 대표자

라. 교육시간: 1일 8시간(9시~18시)

마. 교육비: 15만원(교재·중식 포함)

- 납부방법: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 영수증 발급: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출력 또는 교육 이수 후 전자계산서 발행

2. 신청방법

- 가.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sca.or.kr)를 통해 교육일정, 교육안내, 교육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 후 신청
- 나. 문의처: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담당자(☎02-3284-1080, 1076)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 ▷ 중앙회(회장 김영운)는 5월 9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베트남건설협회와의 간담회를 열어 전문건설사의 베트남 진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 김영운 중앙회장은 5월 18일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원장 도은대) '품질연구원 중장기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연구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김영운 회장과 도은대 원장은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 분야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를 체결했으며, 전문건설정회원사에게는 품질시험수수료를 30% 할인해주기로 했다.
- ▷ 중앙회(회장 김영운)는 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함께 5월 24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대표와 함진규 당 정책위의장, 김종석 지방선거대책위원장 등이, 업계에서는 전진협 김영운 회장과 건단련 유주현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운 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로제, 포괄임금제 등 노동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공사비 부족 문제 등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그에 따른 추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시회 2018년 3/4분기 주요일정 안내

일자	주요일정
2018.8.1(수)	· 2018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2018.9월 중	· 2018년 제3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예정) · 2018년 제3차 전문건설인 단합산행(예정)
2018.9.12(수)~9.13(목)	· 부산·광주시회 대표회원 합동 연수회(예정)

※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스카레터를 읽고..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독자의견은 메일(kosca21@kosca.or.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비엠
이희순 부장

전 문건설인으로 일을 한 지 30여 년이 다 되어갑니다. 협회에서 발행하는 대한 전문건설신문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부산사회에서 제작한 코스카레터를 접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분쟁해법, 건설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등을 통해 실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습득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하는 코스카레터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티아이건설(주)
이소진 대리

20 대 초반에 첫 직장을 전문건설회사로 다니게 되면서 그때도 코스카레터가 오면 종종 읽었습니다. 재취업 후 이렇게 코스카레터를 다시 보게 되니 반갑네요. 직장을 쉬는 동안 개정된 법이라든지, 새로운 건설산업 정보들에 대해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설업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생활속꿀팁, 건강정보 등의 내용도 있어서 더 재밌게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례 및 대책에 대한 내용도 추가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코스카레터 잘 챙겨보겠습니다.

소중한 독자의견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 (문화상품권 등)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독자퀴즈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 명산건설(주) 사장 노상철
- 부영ENG 대표 손문기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

- 5,000원

Q 금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8년 7월 1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기업의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주 최대 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단축(기준: 68시간)되었을까요?

기업 규모	단축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2018. 7. 1.
299인 ~ 50인 이상 사업장	2020. 1. 1.
49인 ~ 5인 이상 사업장	2021. 7. 1.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응모하시면 (기간: 2018. 8. 31. (금)까지) 추첨하여(정답자에 한함)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우리는 왜 IBK카드인가!

우리협회에서는 회원의 복지 및 편의 제공을 위해 2014년 3월 IBK기업은행과 제휴를 맺고 협회 회원사만이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특화카드인 『대한전문건설협회-IBK 제휴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제휴카드의 혜택

01. IBK기업은행의 기본서비스 제공 외 대출금리 및 환율우대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02. 기존 카드보다 많은 포인트적립(제휴카드 최대 0.5%, 기존카드 0.3%)
03. 세무지원 서비스(부가세환급지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 현재 IBK은행과 거래하시는 회원사는 협회로 연락주시면 바로 전문건설인 맞춤형 카드로 변경해 드립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051-633-0260)**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기업은행이 만나
전문건설 발전을 위해
**더 큰 혜택을
건설하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 4층(범천동, 전문건설회관)

Tel.051-633-0260 Fax.051-633-0261

www.kosca21.or.kr